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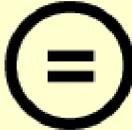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佛教障礙人福祉 實踐方案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徐 丙 鎮

東國大學校 佛教大學院

佛教社會福祉學科

權 純 赫

2010

碩士學位論文

佛教障礙人福祉 實踐方案에 관한 研究

權 純 赫

指導教授 徐 丙 鎮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6월 일

權純赫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0년 6월 일

委員長 : \_\_\_\_\_(印)

委 員 : \_\_\_\_\_(印)

委 員 : \_\_\_\_\_(印)

東國大學校 佛教大學院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3. 선행연구 .....	3
II. 이론적 배경 .....	5
1. 장애인복지의 개요 .....	5
1) 장애인복지의 개념 .....	5
2) 장애인의 유형 .....	10
2. 불교사회복지의 개요 .....	13
1) 불교사회복지의 개념 .....	13
2) 불교사회복지의 사상 .....	15
3) 대승경전에 나타난 장애인관 .....	27
3. 불교장애인복지사업의 필요성 .....	30
III. 장애인복지 현황과 문제점 .....	33
1. 장애인복지의 현황 .....	33
2. 타 종교의 장애인 복지 현황 .....	37
1) 개신교 .....	37
2) 카톨릭 .....	41
3) 기타종교 .....	44
3.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	49
1) 의료 문제 .....	50
2) 교육과 가족생활의 문제 .....	50

3) 사회적 편견과 차별 .....	52
<b>IV. 불교장애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b>	<b>55</b>
1. 불교장애인 복지의 현황 .....	55
2. 불교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	62
1) 불교적 프로그램부족 .....	64
2) 재정문제 .....	65
3) 취업지원 부족 .....	66
<b>V. 불교장애인복지의 활성화 방안 .....</b>	<b>68</b>
1.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제도 지원 .....	68
1) 의료재활서비스의 확대 .....	69
2) 교육재활서비스의 충실 .....	71
3) 직업재활서비스의 충실 .....	71
4) 장애인 경제적 부담경감 시책 .....	72
5) 재가장애인의 이용시설 확충 .....	72
2. 범종단차원의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	73
3. 장애인복지의 범불교적 실천방안 .....	77
1) 불교장애인 자기역량강화 지원 .....	77
2) 불교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	86
<b>VI. 결론 및 제언 .....</b>	<b>91</b>
<b>참고문헌 .....</b>	<b>95</b>
<b>Abstract .....</b>	<b>99</b>

## 표목차

<표 2-1> 가족에 대한 장애의 영향 .....	7
<표 2-2> 장애유형의 분류 .....	11
<표 2-3> 장애인등록 현황 .....	12
<표 3-1> 2009년 예산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현황 .....	36
<표 3-2> 기독교 지교회의 사회복지활동내용 .....	38
<표 3-3> 기독교사회복지와 교회사회사업의 비교 .....	39
<표 3-4> 복지 분야별 교회운영 기독교 사회복지활동 프로그램 .....	40
<표 3-5> 시설의 운영주체별 분포 및 변화추이 .....	42
<표 3-6> 카톨릭 본당 사회복지 활동내용 .....	43
<표 3-7>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	52
<표 4-1> 종교별 사회복지(9종) 시설법인 현황분석 .....	58
<표 4-2>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 시설의 분야 및 형태 .....	59
<표 4-3> 종교계 사회복지 기관시설 운영실태 .....	60
<표 4-4> 불교 내에서의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	61
<표 4-5>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전년대비증감) .....	62
<표 4-6>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증감추이 .....	62
<표 5-1> 자립생활지원 제공서비스 .....	78
<표 5-2>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 과정별 특성과 접근방법 .....	84
<표 5-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및 인원 수 .....	85
<표 5-4>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현황 .....	85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불교와 사회복지의 공통점은 인간과 인간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이다. 그러나 불교는 인간을 고통의 속박에서 해탈(解脫)하는데 목적을 두며, 사회복지는 인간이 처한 상황이나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행복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불교사회복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종교 및 일반 사회복지로서의 입장에 대한 차이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회복지가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불교사회복지가 독자적으로 나아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 불교계는 불교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불교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의 사회복지사업에 임해야 하며,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만이 현대사회에서 전도된 가치와 인간부재의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불교사회복지는 사회과학에 입각한 범칙성을 바탕으로 현실의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전도된 가치에서 오는 인간소외의 현상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사회복지는 종교와 일반 사회복지의 양면적인 이해를 통해서만이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불교사회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교리를 바탕으로 알아보고, 현재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실태와 장애인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불교 장애인복지 실천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文獻研究)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문헌연구는 경전(經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장애인관과 부처가 장애인에게 어떠한 선행을 베풀었으며 당부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에 따른 대책이나 방안과 장애인이 받아야 할 존엄성(尊嚴性), 행복추구의 권리,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마련해야 할 정책과 제도, 실천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실시 하였다.

주요 자료는 불교경전을 토대로 하여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서적과 불교계에서 발표된 논문과 문헌, 학술 연구지와 정책자료, 관련법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약사여래본원경(藥師如來本願經)』을 토대로 장애인복지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불교의 포교와 지역생활공동체에서 불교가 장애인과 일반인의 통합에 관하여 할 수 있는 방향의 실천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장애인복지의 개념논의 및 장애인복지사업의 필요성과 부처의 대자대비를 통한 불교복지의 사상을 배경으로 불교사회복지를 논해 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장애인복지현황과 문제점을 타종교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불교장애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5장에서는 불교장애인복지의 활성화 방안을 범중단과 정부의 역할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자력복지의 실현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을 맺으면서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불교 신행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개발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불교장애인 복지실천방안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 3. 선행연구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장애인복지에 관한 연구는 1094건에 이른다. 그 중에서 불교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위 논문은 현재 12건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불교복지에 관한 개념정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불교 사상에 입각한 복지사상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sup>1)</sup>

불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불교 신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와 일반적인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권경임은 ‘고령화 사회에서 불교노인복지의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천태종을 중심으로 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와 장애인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고, 보각스님의 ‘불교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시설의 운영주체가 불교인 곳을 대상으로 1990년대 후반의 현황만 파악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방정숙의 ‘불교장애인복지사업의 발전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 개의 사찰(광림사)과 하나의 프로그램(직업재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불교전체의 장애인 인식과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이전의 연구에서는 사례에 대한 연구와 현황 파악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연구를 넘어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교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운영과 실천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이전까지의 연구는 불교사회복지의 장애인관에 대한 정립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전에는 불교사회복지에서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 재가불자의 사회복지 참여와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저자는 불교장애인복지 정립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천적 방안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

1) 본 내용에 관한 정보는 국회도서관과 동국대학교 도서관의 검색에 의해 알 수 있는데, 본 논문의 이번 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국회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전의 연구는 종파의 한계와 타종교의 분석방법을 통한 장애인복지의 발전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불교장애인복지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쳤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는 방법보다는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를 중심으로 하여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우선으로 본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장애인복지의 개요

#### 1)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의 개념의 서술에 앞서 장애의 개념부터 정리해보도록 한다. 장애는 유형이나 원인, 그에 따른 정도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어떤 입장에서, 또는 어느 측면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정의나 개념이 전혀 다른 방향의 답으로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환경에 따라 개념에 많은 차이를 보여 주며, 각 나라마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장애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의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sup>2)</sup>라고 정의 되어 있다.

장애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먼저 협의의 개념은 신체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나 이상 상실 또는 신체 일부나 장기 훼손 등을 의학적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을 말하며, 광의의 개념은 1980년 UN산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장애의 세 가지 차원은 신체손상, 능력 장애, 사회적 장애의 세 가지 분류기준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손상, 능력 장애, 사회적 장애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신체에 신체손상

---

2) 권육상 외 5인 (2005) p.434.

이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능력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사회적 장애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신체손상이란 심리적,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상 또는 비정상성을 의미한다. 사지 중의 하나가 절단, 상실, 기형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질병보다는 포괄적 의미로써의 기능 상실을 말한다. 의학적인 진단에 의해서 3가지의 상실을 들 수 있는데 먼저, 뇌출혈이나 뇌성마미와 같은 뇌기능 상실, 다음으로는 시·청각기능의 상실로 인한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있고 마지막으로 심장, 호흡기장애, 정신질환, 백치치우, 노침과 같은 심신장애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능력 장애란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능력의 제약이나 결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적으로 기대되는 활동수행 및 행동의 과다 또는 결핍을 의미한다. 기능의 상실이 기능의 장애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기능상실이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 신체손상은 부적절한 치유에 의해 제거 또는 완화될 수 있는데 차이가 있다.

사회적 장애는 기능손상이나 신체손상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의 수행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sup>3)</sup> 장애인과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 교수가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게 되어도 계속 연구생들을 지도하고 연구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능력 장애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일반인들의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교수의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면 그것은 사회적 장애가 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은 물론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나 형제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종이다. 사회복지란 인간이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발달의 기회를 부여하려 한다.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나 형제의 만성적 수준의 스트레스는 가장 우선적

---

3) 전계서 pp. 11~12.

으로 집안 행사나, 여가활동, 외부인의 방문, 경제적인 타격 등에서 오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는 항상 내재되어 있는 긴장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표2-1>과 같다.

<표 2-1> 가족에 대한 장애의 영향

	단계	스트레스 영역
	가족의 스트레스	부부기
출산		자녀가 비정상인 데에 대한 공포감
취학기		진단, 치료의 발견, 형제와 확대가족에게 장애에 대해 이야기 하기
학령기		장애아동에 대한 다른 아동과 가족의 반응
청소년기		또래아동의 거부, 직업준비, 성문제
진출기		생활환경, 재정적 문제, 사회화 기회
부모 후기		자녀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 서비스 제공자와 상호 작용, 자녀의 연애, 결혼, 출산에 대처하기
노년기		부모 사망 이후 장애아동의 보호와 감독
형제 자매의 적응		장애아출생과 형제 자매 학령 전
	형제 자매 학령기	손 위의 비장애 형제 자매들은 손 아래 장애 형제 자매의 신체적 보호와 책임, 장애를 가진 동생에 대한 설명 등의 문제에 직면한다.
	형제 자매 사춘기	비장애 형제 자매들은 보호책임에 대한 부담, 부모의 보상심리에 대한 압박, 장애 형제 자매와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다.
	형제 자매 성인기	결혼과 출산에 있어 장애자녀 출산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고 장애 형제 자매의 보호에 부담을 갖는다.

출처 : 방정숙 (2005), p.15.

1975년의 3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으며, 일반 시민과 똑같이 충족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한편, 1976년의 제31차 유엔총회에서는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장애인의 해의 주체를 ‘완전 참여’로 정했다.<sup>4)</sup>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및 임상적 차원의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는 인간 권리의 존중에서 비롯되며, 인간 존중 사상을 토대로 한 인도주의에 기반 한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을 위해서도 장애인 복지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념은 정상화와 통합화다. 즉, 장애인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 시 여긴다. 흔히 장애인복지는 복지사회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면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장애인복지는 한 사회의 복지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장애의 원인은 선천적인 경우에도 빈곤, 질병, 약물중독, 의약품의 오남용, 공해로 인한 환경 파괴 등 그 근본적 원인이 주로 현대산업사회의 병리적인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며, 후천적인 원인도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의 원인을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으므로 사회 연대책임의 기초 위에서 장애의 제거와 회복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이 강조 되어야 한다.

개인주의적 장애관에서부터 사회적 장애관으로 인식이 전환됨으로써 장애인 인권의 현실적인 권리성이 확보될 수 있다. 장애인 기본권의 직접적인 법이념적 근거가 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권이지만 인간다운 생활권은 그 하층구조인 근로권과 사회복지 수급권의 상호 연대적 보장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이

---

4) 박옥희(1998) pp33~34.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려면 일정한 소득 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장애인의 절차 참여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sup>5)</sup>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데 장애인관은 그 나라의 경제·문화수준과 그 사회가 가지는 정치적, 도덕적, 철학적 관점과 같은 특성들에 의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관의 바른 이해와 이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이라고 해서 천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과 더불어 모든 영역에 걸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 이념에 근거해야 한다.<sup>6)</sup>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복지는 일반복지와 동떨어진 대우와 처우를 받고 있고, 시대가 바뀌고 사회변화가 바뀔 때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와 태도도 같이 바뀌어 오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는 그 사회의 발달수준, 도덕적 철학적 관점, 교육과 보건, 과학이나 문화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비장애인의 시선 또한 그와 같이 바뀌어 왔다.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능한 한 자립하여 다른 시민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동등한 기본적 생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자립, 평등, 완전참가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에서는 정상화이념과 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이 핵심이 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음과 동시에,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

5) 전계서 p.35.

6) 권육상 외 5인 (2005) pp.32~33.

차별을 받지 않으며, 모든 장애인에게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모든 영역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장애인관을 살펴보면, 유엔의 장애인 권리선언에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아니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일상의 개인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갖는 사회적 불리를 인적·물적·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경감·해소시키고,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기본 개념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사회 속에서 완전히 통합되도록 시행하는 정책을 말하며, 그 목표는 장애인이 정상인과 더불어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다.

## 2) 장애인의 유형

장애인의 유형을 보면, 기능 상실은 신체적 차원으로 신체 일부의 상실, 기능의 감소를 가져다 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병리적 상태를 말한다. 기능장애는 개인적 차원으로 기능상실로 인한 일상생활 또는 취업행위의 장애로서 이것은 정신적 신체적 손상의 결과일 뿐 아니라 그 상태에 대한 개인의 적응 결과이기도 하다. 기능상실이 기능장애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기능장애가 사회적 불리로 연결될 때 일반적으로 사회가 장애라고 이름 짓는 장애가 된다.<sup>7)</sup>

장애유형은 그 정의나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2월 8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장애유형을

---

7) 김미옥 (2003) pp. 72~75.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장애종류를 지체장애인, 뇌변병장애인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으로 분류하고 2003년 7월1일부터 안면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요루, 간질 등을 장애로 포함하였으며, 장애유형의 분류는 <표 2-2>과 같다.

<표 2-2> 장애유형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신체손상, 변형 등의 장애	
		뇌변병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신체손상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	2003. 7.1부터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간기능 이상	2003. 7.1부터
		호흡기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호흡기능 이상	2003. 7.1부터
		장루 · 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 요루	2003. 7.1부터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간질	2003. 7.1부터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출처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999), 제2조 별표 1.

2003년 7월 UN산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국제장애기준(ICF)에 의거 장애의 개념을 단순한 손상에서 기능적·사회적 개념으로 확장하고 호흡기장애, 간질환장애, 장루장애, 중증 간질장애, 안면기형 등의 5종을 추가하여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장애인등록현황은 <표 2-3>와 같다.

향후 3단계 장애범주 확대에는 소화기 장애, 중증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 발달장애, 기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장애범주를 확대할 예정이다.

**<표 2 - 3> 장애인등록 현황(15개유형, 6개 등급)**

장 애 유 형	인 원 수
간	7,666
간 질	9,853
뇌 병 변	251,515
시 각	243,422
신 장	54,071
심 장	15,455
안 면	2,497
언 어	16,366
자 폐 성	13,956
장 루	12,621
정 신	94,013
지 적	155,339
지 체	1,284,394
청 각	242,214
호 흡 기	16,062
합 계	2,419,444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통계 (2009), p.165.

## 2. 불교사회복지의 개요

### 1) 불교사회복지의 개념

불교에서 복지는 승려나 교단이 수행하는 불교의 이념에서 구현된 자리아타(自利利他)적 자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와 고려조에는 불교의 사회비보사업(司誨裨補事業)과 각종 민간자선사업이 활발하게 실시”<sup>8)</sup> 되었는데, “불교가 도입되어 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더욱 융성하게 됨에 따라 불교의 기본정신인 자비사상(慈悲思想)은 우리국민의 의식구조에 뿌리를 내려 우리나라 구제 사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sup>9)</sup>

전근대사회에서 불교 사회복지활동은 포교(布教)의 의미와 동시에 자선·구제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자선구제의 복지활동은 엄밀한 의미에서 불교의 독자성(獨自性)이라고 보기에 어렵다.

불교사회복지는 불교적 심정으로 생활개선을 원조(援助)하고, 개인이나 가족의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라 정의할 수 있다. 불교 사회복지의 실천 주체는 구체적인 교단이나 사찰(寺刹) 내지는 법인조직 혹은 비영리단체일 것이다. 그리고 대상설정에 따라 그 주체적 계기와 목표과제가 정해지는데,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적 장애를 목표과제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평등하게 복지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불교사회복지사업의 대상과 목표가 된다.

사회복지가 분화되지 않은 시대를 지나 현대에 들어서 직접적인 대인 서비스 및 간접적인 원조서비스라는 두 가지 기능으로 분화되는 시대로 사회복지사업이 이전하고 있다. 또한 자선이나 구제사업 등으로 인식되던 때에는 사회복지전문가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구제

---

8) 구자현 (1981) p.172.

9) 하상락 (1995) p.47.

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라는 일종의 종적인 인간관계가 존재하고, 대상에 대해서도 사회적 탈락자로서 열등처우의 원칙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국가나 민간 기업들과 위탁계약을 맺은 시설들로서 종교 법인이 주체가 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시행과 시설의 설치에 자유로운 모금활동에 의한 독자적인 활동이 제약되며, 또한 복지 대상도 사회복지법이 규정하는 대상에 한정되는 실정이다.

불교사회복지가 국가의 위탁사업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종교적 민간사업으로서의 특색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불교사회복지는 “공적사회복지가 쉽게 이를 수 없는 정신적 구제(救濟)·인격교육·도덕성 함양·사회성이나 국제성의 훈련 등에 대해서 독자적인 사명과 특색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의 공영화(公營化)에 억눌려 단순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하청사업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현대 사회복지의 한계를 보충하고 진정한 사회복지를 확립시키는 것에 불교사회복지의 독자성(獨自性)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과학을 기반으로 한 시책은 국민을 일개의 사회적 단위로 보고 획일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인간부재의 현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거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개발하여 내면적인 주체성을 확립시키는 불교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리나가 마츠노부(森永松信)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복지를 종교의 자기실현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사회복지의 이념적 원천을 불교의 인간존중의 정신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간사회복지 속에 불교사회복지의 위치를 규정하고 공적 사회복지사업에서 쉽게 이를 수 없는 정신적 구제나 인격 완성에 목표를 두고 자선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리야 시게루(守屋 茂)는 사회복지 일반시책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불성(佛性)을 계발하고 주체적 인간이 되도록 하는 정신적 사회교화나 개혁에 불교사회복지의 최대 책무와 독자성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불교 사회복지사가 주체로서 올바른

불교정신을 체득하고 그에 입각해서 대상자를 교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실현의 장을 거의 민간사회복지에서 구하고 있는 점이다.

## 2) 불교사회복지의 사상<sup>10)</sup>

### (1) 생명존중사상(生命尊重思想)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가없이 여긴다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말라는 계율이 있는데, 이러한 계율 가운데 첫째가 불살생(不殺生)의 계(戒)이다.

대승보살계인 『범망경(梵網經)』에서는, “불자가 만약 자신이 죽이거나 또는 사람을 시켜 죽이게 하고,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죽임을 찬탄하고,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呪)하여 죽인다면, 살(殺)의 인연과 법, 업(業)이 있을 것이니 일체의 생명 있는 것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보살은 항상 자비심으로 일체중생을 구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만물일여(萬物一如)라 하여, 일체의 모든 만물이 불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만물이 하나처럼 일치되는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즉, 이것은 자기 자신이 죽기를 싫어하는 것과 같이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죽기를 싫어하므로 남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생명 그 자체의 소중함과 더불어 다른 생명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명보호, 나아가서 생명존중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불살생계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을 살리고 구호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적극적인 방생사상을 권장하고 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여 불살생의 계율이 되고 나아가서는 널리

---

10) 본 장은 권경임의 「불교사회복지 실천론」과 서병진의 『아쇼카왕의 복지사상 연구』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 정리하는 장으로서 전체적인 불교사회복지의 사상적 내용을 자비, 복전복리, 보시, 지은보은, 보살, 평등, 생명존중사상으로 나누고 있는 설을 따른다.

생명을 해방시키는 방생사상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방생사상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교화를 통해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생명존중사상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까지도 한결 같이 불성 생명(佛性生命)의 시각에서 동일시(同一視)하고, 붓따의 법음(法音)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온갖 사람들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염원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의 가르침을 알 수 있게 하였다.<sup>11)</sup>

이러한 생명존중사상은 인간사회의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기반이 되는 우주의 자연환경까지도 보호해야 하는데,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사회가 인간의 복지와 연관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복지환경의 근간이 된다.

## (2) 자비사상(慈悲思想)

불교복지를 실천하는 근간으로서 ‘자비사상’을 들고 있다. 불교의 근본이 되는 사상은 자비로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 “자비시불도지근본(慈悲是佛道之根本)”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비는 불도의 근본으로, ‘자(慈)는 기쁨을 주고, 비(悲)는 고통을 없앤다.’는 의미이다.

자비정신은 괴로움을 없애주는 발고(拔苦)와 즐거움을 주는 여락(與樂)인 발고여락의 덕으로 매우 큰 이타적 정신이라 하겠다.

불교가 지향하는 가치 전체가 복지사상과 일치하는 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비는 연관이 가장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불교사상 중에 복지와 관련될 수 있는 몇 가지를 뽑아 보면, 보시(布施)를 비롯한 육바라밀(六波羅蜜), 사무량심(四無量心), 복전(福田), 보은(報恩), 보살사상(菩薩思想)을 꼽을 수 있다.

보살이 선무량심(善無量心)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는 나는 일체종지(一

---

11) 김선근(2000) pp.163~166.

體種智)인 불지(佛智)를 얻어 일체중생의 번뇌를 끊어버리기 위해 설법 하리라고 마음먹는다. 이것이 바로 보살마하살이 선정바라밀을 행할 때 보시바라밀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살바야심(薩波若心), 즉 일체종지심(一體種智心)으로 선정바라밀(禪定波羅蜜)을 행할 때에는, 모든 바라밀을摄수(攝受)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살마하살이 발심해서 대승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보살은 자심(慈心)으로 일체중생을 안락케 하고 비심(悲心)으로는 괴로움을 여의게 하며, 희심(喜心)으로는 해탈케 하고 사심(捨心)으로는 일체중생이 번뇌를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마음을 갖는다. 이것이 보살이 사무량심을 행할 때의 보시바라밀이다. 이와 같이 사무량심은 동체대비의 자비사상과 맥을 같이하여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다.

### (3) 보시사상(布施思想)

보시는 육바라밀(六波羅蜜)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수행덕목으로서, 보살이 중생의 마음을 만족케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선근과 모든 재물을 안팎으로 다 희사하되 집착하는 바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일체를 베풀면서도 베풀다는 집착이 없는 바라밀로 이해되고 있다.

육바라밀은 보살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여섯 가지의 수행방법인데,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은 단나바라밀(檀那波羅蜜)의 번역으로,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외시(無畏施)를 남에게 베풀어줌으로서 탐심을 끊고 집착을 떠나는 것이며, 또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윤리적인 실천행이다. 이 보시행은 초기와 부파불교에서 재가자들에게 권하는 수행법이었으나 대승불교에 와서는 승속을 일관하는 실천수행법으로써 강조된다.

보시에 대해 설하고 있는 경전으로는 『우바새계경(優波塞戒經)』 권7이 있는데, 선성장자를 위하여 보살계를 설하는 형식으로 『중아함경(中阿含經)』 가운데 「선생경(先生經)」을 계승하고 그 사상을 발전시킨 것으로 남을 이익 되게 하는 것이 그대로 자리(自利)가 된다는 보살도의

근본정신을 밝히고 있다.

보시는 “사섭법(四攝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대승의 보살이 사람들을 섭수하고 조숙(調熟)하는 방법에 네 가지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보시(布施)·애어(愛語)·이행(利行)·동사(同事)이다.

이 사섭법은 초기에서 부파·대승불교에 널리 설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시는 재물과 법(진리)를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친애의 마음을 일으켜 인간간계를 좋게 하고 사람들을 교화하는 방법이다.

애어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친애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여 사람들을 교화하는 방법이다.

이행은 신(身)·구(口)·의(意)로 사람들을 이익케 하는 여러 가지 행위인데 이러한 이로운 행위에는 가난·병·곤고(困苦)·액난(厄難)을 구하고 나아가서 믿음과 가르침을 주는 등의 이타행(利他行)을 포함한다.

동사는 사람들과 친밀해져서 고통(苦樂)을 같이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근기나 상황을 잘 사유해서 그들의 입장이 되어 도우며 이익 되게 하여 교화하는 방법이다.

「이세간품(離世間品)」에서는 “중생을 가리지 않는 평등시(平等施), 소원을 만족케 하는 수의시(隨意施), 이익을 얻게 하는 불란시(不亂施), 상중하를 아는 수의시(隨宜施), 과보를 구하지 않는 부주시(不住施), 마음에 불연자(不戀者)하는 개사시(開捨施), 구경칭정한 일체시(一切施), 유위무위를 멀리 떠난 회향보리시(廻向菩提施), 도량불사(道場不捨)의 교화중생시(教化衆生施), 시자(施者)와 수자(受者)와 시물(施物)을 바른 생각으로 관찰하여 허공과 같은 줄을 아는 삼륜청정시(三輪淸淨施)” 등을 제시하며 이외에도 갖가지의 10종 보시를 설하고 있다.

① 분감시(分減施) - 맛있는 음식이나 물건 등을 혼자서 수용하지 않고 중생에게 먼저 시여함.

② 갈진시(竭盡施) -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아낌없이 가진 것을 전부

보시함.

③ 내 시(內 施) - 수족(手足)과 혈육(血肉)· 두목(頭目)· 골수(骨髓) 등 육신을 버려 보시하되 후회가 없음.

④ 외 시(外 施) - 왕위(王位) 등을 보시함.

⑤ 내외시(內外施) - 신(身)과 재보(財寶)와 왕위(王位) 등을 보시하고 내지 복역(僕役)함.

⑥ 일체시(一切施) - 가지고 있는 모두를 보시하는 것으로 신(身)· 명(命)· 재(財) 등 사사(事捨)를 포함.

⑦ 과거시(過去施) - 과거 제불보살들의 모든 공덕과 일체제법이 있는 것이 아닌줄 알아서 취착하지 않고 다 버림

⑧ 미래시(未來施) - 미래 제불보살의 수행할 바에 취착하지 아니하며, 따로 제불국토에 왕생함을 즐기거나 집착하지 않고 미래법을 다 버림.

⑨ 현재시(現在施) - 제천(諸天)과 이승(二乘) 공덕에 탐착함이 없되, 중생이 악취를 버리고 보살도를 닦아서 불법을 성취케 하기 위하여 개연(開演)함.

⑩ 구경시(究竟施) - 위의 사사(事捨)와 심사(心捨)를 겸하여 보시하되 일념의 애착도 내지 않으며, 중생들도 신심(身心)에 탐착치 않고 다 청정지신(淸淨之身)을 성취케 함.

『불설보시경(佛說布施經)』에 보시행의 복덕에 대해 설하고 있는데, “보시할 때에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偷盜)· 불사음(不邪淫)· 불망어(不妄語)· 불기어(不綺語)· 불악구(不惡口)· 불양설(不兩舌)· 불간탐(不慳貪)· 불진에(不嗔恚)· 불사견(不邪見)의 십선심(十善心)을 가지고 행하면 그에 따른 10종의 과보(果報)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보시를 행하는 자· 받는 자· 보시물에 대한分別심이 없도록 해야 진정한 보시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시행을 함으로써 중생을 조복하게 하고 대립을 떠나게 되며 자타를 총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보시바라밀의 인연과 공덕에 대해서는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에 ‘보시의 네 가지 공덕’을 설하고 있는데, “보시할 때를 알아서, 지혜롭고, 정결하며, 미묘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시물(施物)·경애(愛敬)·이인(利人)·등리(等利)의 사사공양(四事供養)을 행하는 것이 복업”이라 하였는데, 사섭법과도 통하는 내용이다.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에서 설하는 ‘보시’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무이법(無二法)으로써 보시를 일체지에 회향하면 보시바라밀이라 하니, 생기는 것이 아니며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체지에 회향하는 보시를 보시바라밀이라 하고, 나아가서 무이법으로써 지혜를 일체지에 회향하면 반야바라밀이라 하는데, 생하지 않고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체지에 회향하는 지혜를 반야바라밀이라 한다.

여기서 ‘보시’와 ‘보시바라밀’은 차이가 있는데, 상대적인 분별을 하지 않고, 일체지인 무분별지(無分別智)에 회향하는 보시를 보시바라밀이라고 한다. 보시를 할 때에, 나는 주고 상대는 받으며, 베푸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그냥 보시일 뿐 보시바라밀이 되지 못한다. 즉, 아상(我相)·타상(他相)·시상(施相)의 세 가지 관념에 집착하고 하는 보시는 세간의 보시바라밀일 뿐이며, 이 세 가지가 모두 청정할 때라야 비로소 출세간의 보시바라밀이 된다.

육바라밀은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기 위한 여섯 가지의 수행방법으로, 대승불교의 실천체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며 보살도의 수행인 것이다. 이 육바라밀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행으로 초기불교 이래 계(戒)·정(定)·혜(慧) 삼학의 사상을 계승하고 보시(布施)·인욕(忍辱)·정진(精進)을 추가하여 육바라밀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 (4) 복전복리사상(福田福利思想)

자비의 실천에 목적을 주는 ‘복전(福田)은 복덕을 낳는 밭이란 의미로

불(佛)을 복전(최승복전(最勝福田)이라 하는데, 불·법·승의 삼보(三寶), 부모(父母), 고통 받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보살피게 되면, “자신에게 복을 생(生)하게 하므로 복전”이라 한다.

대승불교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보살의 수행 가운데서 무수히 많은 복전을 말하고 있다. 보살의 복전은 자신의 자심(慈心)과 공관(空觀)을 근거로 하는 이타행이므로 타인에게 보답을 요구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바로 불교의 깨달음을 향한 실천이다.

처음에는 부처만이 복전이었던 것이 발전하여 보살이나 승가, 나아가서 부모나 스승도 복전이라고 말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러한 복전을 신앙의 기쁨 그 자체로 돌려서 정사를 짓고, 침구나 의복, 음식물을 바치는 것이 되었다. 이것이 널리 일반 민중에게 미쳐서, 사회적 약자인 빈곤자, 노인, 병자 등에 까지 확산되어 이들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이 제공되었으며, 다양하게 세간적 복지에 이르는 복전이 성립하였다. 이러한 복지는 동산에 과수를 심어서 서늘한 그늘을 만들고, 다리와 배를 만들어 건너게 하며, 우물을 파서 목마름을 덜어주고, 여행자에게 객사를 제공하고, 탑을 세우고 정사를 지으며, 광야에 물과 풀을 대어주고 집을 지어 준다.

이러한 복행은 세간적인 선(善)인데, 이것을 행하면 상대적으로 복덕을 얻는다는 생천복락사상(生天福樂思想)에 의한 것이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반에 이르는 것인데, 이러한 복전사상은 그 당시 인도에 전승되어 오던 사고방식을 이용하여 불타가 세속적인 복행을 권장한 것이다.

복전의 여러 종류가 생겨서 비전(悲田)과 경전(敬田)이 나오고 고전(苦田), 공덕전(功德田) 등이 더해지면서 2복전에서 8복전으로 발전해 나간 것이다.

‘복전’이란 복행(福行)을 하는 대상이며 그 대상을 공양함으로써 장래에 복을 받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행이 행해지는 대상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복덕을 주는 받이 된다는 의미에서, 공양하는 대

상을 복전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복전이란 말은 불교 이전부터 인도에서 사용되었고, 수행자·빈민·여행자 등에게 보시를 하면 그로써 공덕이 생긴다고 믿은 사람들이 그들을 복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복전사상은 경전(敬田) 보다는 비전(悲田), 고전(苦田)에서 가난한 자, 병자, 축생에 보시하는 것이 제일 큰 공덕이라고 했다.

복전사상은 초기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공공복지정책의 형태로 시설복전사업으로 발전하였는데, 아쇼카왕의 복지정책에서부터 나가르주나(Nagarjuna, 용수)의 『보행왕정론(寶行王正論)』에서 사타바하나왕에게 설한 『정도론(政道論)』에 이르기까지 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복전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복지정책으로 시행한 것이라 하겠다.<sup>12)</sup>

#### (5) 지은보은사상(知恩報恩思想)

지은보은사상은 대승불교의 보살도 가운데 중요한 사상의 하나로, 은(恩)은 “~한 바를 안다, 느끼다”의 의미이며, ‘지은(知恩)·감은(感恩)’이라 번역된다. 이 지은에 의하여 보은(報恩)이 행하여지는데, 은혜를 알아서 갚는다는 의미이다.

『잡아함경(雜阿含經)』에 보면 타인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는 비록 그것이 작은 은혜라도 잊어서는 안 되며, 하물며 큰 은혜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대소은(大小恩)에 대한 지은보은을 설하고 있다.

지은보은은 자리아타에 의한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일체중생을 연민하는 보살행이며 성불의 길로서 세속적인 효양(孝養)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활동인 것이다.

『유마경(維摩經)』에서는 “불은을 갚기 위해서는 중생을 크게 요익(饒益)케 해야 한다.”고 설하여 불은을 강조 하였다.

---

12) 서병진(2005) p.111 재인용.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의 「보살지(菩薩地)」에서는 대승계인 삼취정계(三聚淨戒)를 설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요익중생계에 이타행의 하나로 보은을 설하고 있다.

지은보은사상을 설한 경전으로는 『대승본생심지관경』이 있는데, 부모은(父母恩)·중생은(衆生恩)·국왕은(國王恩)·삼보은(三寶恩)의 사은(四恩)을 강조한다.

① 부모은 - 부모의 정신적, 물질적 은혜를 아는 것으로, 이해타산을 초월한 부모의 양육이나 교육 등을 생각할 때 신체적·정신적으로 부모가 없으면 본인도 존재할 수 없게 되는 내력을 자각하는 것이다.

② 중생은 -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자각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사회 전반에 확대시켜 볼 때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부조에 의한 은혜를 비롯해서 갖가지 사회자원이 없다면 최소한의 생존조차도 확보할 수 없으며 더구나 정신적·문화적으로 고도의 생활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일이다.

③ 국왕은 - 다시 말해 국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으로, 정치·경제·교육활동을 비롯해 사회 기초질서를 유지하는 것 등을 포함해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적인 보장을 받게 됨을 자각하는 것이다.

④ 삼보은 - 무아관에 기초하여 자(自)·타(他)의 인격적인 관계를 깨닫고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찾으며 인격 수행의 길을 가는데 불·법·승의 삼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일이다.

이 중에 현대사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중생은이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웃이나 사회로부터 은혜를 입기 마련이고, 이러한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보은의 사상이 불교사회복지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 (6) 보살사상(菩薩思想)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에서는 “보살의 대서장엄(大誓莊嚴)은 허공과 같은 중생들을 위하여 큰 서원으로 장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큰 서원으로 장엄하여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는 것은 허공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데, 모든 보살은 큰 정진력을 얻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는 것”이라고 보살사상에 대해 설하고 있다.

보살이 큰 서원으로 장엄하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허공처럼 공(空)하기 때문에 공으로 돌아가게 되며 공으로 돌아가는 그곳에 청정한 불국토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공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생(衆生)을 구제한다는 데 반야경 보살도의 특징”이 있다.

『화엄경(華嚴經)』의 육바라밀 사상을 정리 해 보면, 우선 바라밀을 실천하는 목적이 모든 사람을 구제하는 데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행복권을 추구하는 복지사상과 직접적인 연관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하는 데 지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라밀’의 궁극적인 목적을 경문에서는 모든 중생의 성불, 모든 국토의 정토화(淨土化)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복한 개인과 정화된 사회를 추구하는 사회복지의 목표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보여 진다.

보시를 통해 무아를 실현하고, 지계를 통해 해탈의 선업을 짓고, 인욕을 통해 자비의 원을 세우고, 정진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일체중생을 교화하고, 선정을 닦아 탐욕에서 해탈하여, 청정한 마음으로 무상하고 무아한 제법의 실상을 깨달아 업(業)의 원리에 따라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성불하고자 하는 보살의 삶이다.

복지와 연관되는 불교사상으로 보살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살’은 초기불교에서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을 비롯해 석존이 정각을 얻기 전에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던 때의 모습과 미래불인 미륵불의 수행시절을 뜻하는 개념이었다.

부파불교시대에는 이러한 개념에서 의미가 점차 확대되었는데, 보살은 자리아타를 행원으로 하여 무상정등각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수행하는 지혜로운 유정이라 하고, 불타의 후보자를 보살로 보기도 하였으며, 정각을 얻어 불타가 된 석존도 보살로 부르고, 또한 보살은 악취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여 보살을 이생범부(異生凡夫)와 동일시하였다. 이와 같이 부파불교시대에는 석가보살만을 말할 뿐이며, 미륵보살을 제외하고는 다른 보살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대승불교에 이르면 보리심만 일으키면 누구나 보살이라는 사상과 더불어 가장 이상적인 인격자로서 지혜와 자비, 또는 행(行)과 원(願)을 동시에 갖춘 이를 보살마하살이라고 한다.

『아미타경(阿彌陀經)』은 “오탁악세(五濁惡世)에서 해악(害惡)과 곤궁(困窮)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 부처님이 아미타불에 의한 구제”를 설명한 경전이다. 여기서는 현실사회의 죄악과 불합리로 가득한 실태를 추궁하고, 그 해악과 곤궁에서 구제되는 이상적인 사회가 전개되며 그러한 구제는 범장비구의 사십팔서원(四十八誓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현실에 사회악의 원인으로 오탁악세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오탁은 다음과 같다.

① 겁 탁(劫濁) - 사람과 세계의 수명이 점차로 줄어들고, 각기 기아·질병·전쟁 등 시대의 더러움으로 겪는 재해이다.

② 견 탁(見濁) - 부처님의 입멸 후 천년이 지나서 그릇된 견해와 그릇된 가르침이 다투어 일어나고 부정한 사상의 더러움이 넘치는 것이다.

③ 번뇌탁(煩惱濁) - 사람의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서 더러운 것을 이른다.

④ 중생탁(衆生濁) - 사람이 악행만을 하고 인륜도덕을 돌보지 않으며 악한 과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⑤ 명 탁(明濁) - 수탁(壽濁)이라고도 하며 사람의 수명이 점차로 단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오탁을 사회에 해당시킨다면, 겁탁은 국가·사회의 정치경제적 모순과 혼란, 지구의 환경문제, 그리고 복지제도로 심각한 사회불안과 재해를 초래하는 현상이 될 것이며, 견탁은 사상적 동요와 가치관의 혼란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번뇌탁은 이기적 욕구의 만연과 여러 가지 인격적 해체현상이라 할 수 있고, 중생탁은 격화된 경쟁·실업·파산·계급투쟁이나 이와 관련되는 내우외환의 심각한 현상이며, 또한 명탁은 이상의 여러 상황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인간의 세 가지 재난인 질병·기아·사망과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는 현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오탁악세는 삼독(三毒)·오악(五惡)의 고통으로 가득한 사회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회악에서 중생을 구제하고 정토를 구현한다는 보살사상이 나오게 되었다.

### (7) 평등사상(平等思想)

평등사상이란 차별이 없이 한결같음을 일컫는 것으로, 중생들을 차별 없이 성불하게 하는 만법의 근본이 되는 원리를 말한다.

불타 생존시에 인도사회에서는 사성계급이라는 차별적인 계급제도가 있었는데, 불타는 이러한 선민적인 계급제도를 부정하고 인간평등을 주장하였다.

일체중생은 모두 평등하게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일체중생 실유불성을 『열반경(涅槃經)』에서 설하고 있는데, 일체의 제법은 다만 망념에 의해서 차별이 있게 되므로, 망념

을 버리면 일체의 경계상이 없어진다. 그러면 일체법은 모든 상을 떠나므로 반드시 평등하다고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 밝히고 있다.

인간이 누구나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싫어하며 고통을 싫어하는 것이 상정이라는 점에서 자타(自他)는 같은 사회적 존재라는 평등관이 바탕이 될 때, 남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으로 여겨질 것이며 이를 구제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평등사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만물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특히 인류문제와 계급문제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평등과 질서에 대한 이념을 제시하여 불교사회복지의 이정표가 되는 사상이라 할 것이다.

### 3) 대승경전에 나타난 장애인관

『약사경』에는 ‘일시적인 병(病)에 대해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는 병’<sup>13)</sup>이라고 분명하게 따로 설해져 있고, 기준은 사람에게 든 병의 상태가 더 이상 감소되거나 치료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도 제자로 삼았던 부처는 특별히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 육신을 마음대로 못하는 장애인 등에게 더욱 가슴아파하며 한량없는 자비심을 베풀었다. 그리고 경전에 기록된 부처의 제자 가운데 장애인이 있었다는 사실하나만 보더라도 부처가 추구했던 진리가 무엇인지, 또한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불교경전인 『약사경』에 나타난 장애를 현대적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sup>14)</sup>

지체장애 : 신하열제근불구(新下劣諸根不具 : 신체장애), 추(醜 : 기형), 비(痺 : 류머티즘), 벽(臂 : 앓은뺨), 배루(背婁 : 굽추)

13) 김주영 (1997) p.34.

14) 森永松信, 이혜숙 역(1992) p.38.

시각장애 : 맹(盲)/청안, 적안, 란안, 백예안, 미리안, 철안, 첩안, 할안, 사안

청각장애 : 농(聾), 아(瘵)

언어장애 : 음아(瘖瘵)

정신지체 : 누완(陋頑)

정서장애 : 마매(魔魅 : 가위눌림), 기시귀등지소뇌해(起屍鬼等之所腦害 : 송장을 일으키는 귀신 등에 시달림)

기 타 : 련(攣 : 간질), 학(瘡 : 학질 말라리아), 수(瘦 : 마름병), 고(蠱 : 중독), 백나(白癩 : 나병), 건소(乾消 : 소갈병, 당뇨병)

불교의 장애인의 개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병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광자, 심란, 치광이 있고, 정신지체로는 치인, 우치가 있으며, 정신질환으로는 벽병, 고뇌, 진에를 들고 있다. 이를 통해 심신장애인 기본법에 나타난 장애들이 이미 불교경전에도 대부분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약사경』 대원의 장애 “문수사리여, 그러한 나라의 부처 여래, 응공, 정등각께서 처음 발심하여 보살의 길을 수행할 때부터 여덟 가지의 대원을 세웠느니라.” 하셨는데, 그 여덟 가지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장애 극복에 대한 내용이다.

첫째, “내가 내세에 위없는 보리를 완성하였을 때 만약 온갖 병과 괴로움으로 시달리고, 그 몸이 열병(熱病)과 학질(瘡疾)과 벌레와 허깨비와 기시귀(起屍鬼)의 괴롭힘을 받고 해를 받는 중생이 있어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염불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병과 괴로움이 다 없어지고 끝내는 위없는 보리를 증득하게 하리라.”는 대원이다.

둘째, “내가 내세에 위없는 보리를 완성하였을 때 만약 눈이 멀거나(시각장애), 귀가 먹었거나(청각장애), 말을 못하거나(언어장애), 백라(나병의 일종)와 간질 등 온갖 병에 시달리는 중생이 있어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염불의 힘으로 말미암아 신체의 모든 기관이 고무 갖추어지고, 모든 병이 다 없어지고 끝내는 보리를 증득하게 하리라.”는 대원이다.<sup>15)</sup>

부처가 대법왕(大法王)으로 존칭되는 것은 사바세계를 하나의 국가 관념으로 보고 중생들로 하여금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즐거움의 복지사회를 실현하게 하는 최고의 지도자로 믿고 따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부처님의 모습으로는 중생과 더불어 할 수 없다. 오직 보살로서 중생의 모습과 함께 하였을 때 중생의 괴로움을 알고 그들의 고통의 원인을 치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6)</sup>

불교경전에 나타난 장애인의 사례를 보면, 『증일아함경』에 시각 장애인으로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의 한 사람인 아니룻다가 있고, 정신박약인으로는 『법구경』에 주리반특가를 들 수 있으며, 지체장애인으로는 척추장애인인 쿠췌타라가 있다. 떳사 라는 제자는 수행중 갑자기 몸에 부스럼이 생겨서 온몸이 썩어가면서 피고름이 터지고 뼈마디가 풀려 움직이지도 못할 지경이 되자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헛간에 버려진 떳사를 보고 부처님은 손수 물을 데워서 떳사의 몸에 피고름을 씻겨주며 간호해주셨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을 제자로 삼았던 부처님은, 특별히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 육신을 마음대로 못하는 장애인 등에게 더욱 가슴 아파하며 한량없는 자비심을 베풀었다. 그리고 경전에 기록된 부처님 제자 가운데 장애인이 있었다는 사실하나만 보더라도 부처님이 추구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또한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불교적 관점에서 장애의 원인을 보면 장애는 고통의 산물로 모든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의 원인을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다

---

15) 한글대장경, 『약사경』, p.12.

16) 이법산 (2004) p.22.

고 하여 인간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타내고 있다.

### 3. 불교장애인복지사업의 필요성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장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사고 등의 위험부담 요소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한 장애는 장애인 본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나 환경으로부터 빚어지는 결과로 보아야 한다.<sup>17)</sup> 따라서 장애인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공통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장애현상이나 장애인의 문제에 적절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회적 대책과 방안을 세워 효과적인 장애해결의 장으로 무엇보다 불교의 근본사상으로 어렵고 힘든 사회복지, 즉 장애인복지에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불교사회복지의 기본자세는 일반사회복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개인 생활 전체에 독립심을 손상치 않고 정상적 생활을 의도하는 사회인을 지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 있어서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인격지향이 고양되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사회의 봉사자가 되는 과정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불교 사회복지사업의 특별한 요구다. 그러나 일반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도 구호, 육성, 재활 등을 요구하는 대상에 대하여 그 독립심을 손상함이 없이 정상적 생활이 가능한 사회인이 되도록 목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불교사회복지는 대상자를 기본적으로 다만 일반사고자에만 그치지 말고, 널리 일반 사람들 모두에게 이것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사회복지가 생사의 공포의 문제 등 비일상적 문제에 대하여 조치하지 못하고 방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불교사회복지는 이러한 인생의 어

---

17) 김운태 (1993) p.15.

려운 문제를 종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즉 인간 복지를 본질적으로 넓히고 높이며, 또한 깊게 하는 역할이 불교사회복지에 부여되는 본래적인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는 일체 중생의 구제를 기반으로 인류적 규모에 있어서는 정신공동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종교적으로는 널리 인류 전체의 평화와 복지에 공헌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불교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다.

불교사상을 근거로 한 장애인 복지사업의 핵심은 과학적 입장에 선 사회사업에 단순히 불교적인 것을 도입한다는 것뿐이 아니고, 불교에 의하여 해명된 직관적인 자각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불교를 ‘깨침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미혹을 스스로 깨달아 청정한 본래심의 정도를 실현하고 그 깨달음이 사회의 깨달음으로 환원될 때 깨달음의 대중화 내지 사회화의 불국정토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깨달음의 성취는 곧 반야바라밀의 완성이다. 반야의 지혜로움은 사회 모두를 밝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sup>18)</sup>

불교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의 결국 사회과학적 입장에 서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시책 방법이 필요하지만 나아가서 인간의 내면적인 면에 있어서 자주적인 주체를 확립하고 자율적 인간상을 상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논리적인 지식뿐만이 아니고 비논리의 논리적인 참된 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에 불교복지사업이 부담해야 할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보편화에 대한 특수화이고, 사회적 평등의 단위로서의 인간에 대하여 개별화된 개개인을 잃지 않아야 한다.

현대의 사회복지사업은 사회과학적 입장에 서서 행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현 시점에 있어서 보면 너무 과학 일변도에 빠지는 경향이 다분히 있으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인간성 부재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인간성의 회복을 의도하면서 동양적인 인식의 정수인 불교적인 것을 도입하여 활로를 찾아야 만이 제대로 된 사

---

18) 이범산 (2004) p.22.

회복지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승보살도의 정신과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들이다. 사회복지사들의 자비활동이 새 시대로 향하는 새로운 지도 원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불교의 중생구제를 위한 방편으로, 물질적 원조에서 정신적 원조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기완성(성불)에 이르기 위한 것으로 현대 일반사회복지 실천영역을 포괄하는 차원 높은 복지사상인데, 이러한 불교 사회복지 이념을 장애인복지 이념과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해야 한다.<sup>19)</sup>

---

19) 권경임 (2004) p.183.

### Ⅲ. 장애인복지 현황과 문제점

#### 1. 장애인 복지의 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사업은 1963년 산재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 그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과 함께 장애인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정책적으로는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과 심신의 자립을 기반으로 세금감면과 공공시설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시설의 증개축과 자립을 위한 보조장치에 대한 지원이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역할분담체계, 공공부문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체계, 그리고 전달체계의 내부조직화 문제 등에 대한 논의로 진전되어 왔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도 결코 독립적일 수 없다.

장애인복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중앙부처는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은 행정자치부에서, 군인연금법은 국방부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교육부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전상공상군경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은 건설교통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장애인은 노동부가 담당한다. 의료와 교육재활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있다. 이러한 담당부처의 넓은 스펙트럼을 여기서는 대상자의 포괄성, 서비스내용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고 전달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직업재활에 국한하여 고찰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

도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중의 하나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복지 심의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타부서와는 달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전달체계는 행정자치부의 일반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 내에 복지정책과에서 관련 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과 내 사회계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사회담당 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보건사회부가 1970년대까지 70여 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직업재활을 입소장애인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관장, 1981년 심신장애인법의 제정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전달체계가 보건사회부 산하에 성립되었다. 장애인고용정책을 위한 노동부의 전달체계는 1990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과 1993년부터 연차계획에 의한 지방사무소의 개소로 볼 수 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공식적 논의는 1989년도 마련된 장애자복지종합대책이다. 이는 정부가 공급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 있는 전달체계에 관하여 장애인 복지관련 부처 간의 업무의 협조와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에 장애자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회복지 직렬화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지적되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논의를 적극 수용하여 199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부처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러나 실무위원회가 상설되지 않고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상정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실무적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지속적으로 정책간의 연계성을 꾸준히 조정, 통합해 나가는 실제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의 양적인 팽창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질적 발전을 수반하였으나 정책의 발전이 실제 정책수요자의 실제적 욕구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앙부처차원에서 정책적 연계성부족, 행정기관 간의 역할배분의 부적절, 담당인력의 절대적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정책 간의 상호연계성의 미흡이다. 둘째, 보건복지부의 정책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관리운영기능 간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의무고용제가 실시된 10년이 지난 현재 장애인고용정책은 전달체계 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직업재활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이원화이다.

둘째,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셋째, 장애인직업재활 관련 인력 양성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문의 예산배정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폭이 미미한데 예산 주요 분야별 배분 현황은 <표3-1>과 같다.

<표3-1> 2009년 예산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조원, %)

	2008		2009		B-A	증가율 비중
		증가율(A)		증가율(B)		
R&D	11.1	13	12.4	11.5	-1.5	-5.9%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12.6	0.3	16.2	28.5	28.2	110.2%
SOC	19.6	6.3	24.7	26	19.7	77.0%
농림수산식품	16	0.3	16.7	4.8	4.5	17.6%
보건, 복지	67.7	10.2	74.7	10.4	0.2	0.8%
교육	35.6	15.7	38.3	7.7	-8	-31.3%
문화, 체육, 관광	3.3	11.7	3.5	6.7	-5	-19.5%
환경	4.5	10.6	5.1	14.1	3.5	13.7%
국방(일반회계)	26.6	8.8	28.6	7.3	-1.5	-5.9%
통일, 외교	2.8	15.6	3	5.1	-10.5	-41.0%
공공질서, 안전	11.7	7.1	12.3	5.6	-1.5	-5.9%
일반공공행정	45.9	8.6	48.7	6.1	-2.5	-9.8%
예비비	2.3	-	4	72.2	-	-
예산(순계)	195.1	10.4	217.5	11.5	-	-

출처: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예산안 참고

## 2. 타 종교의 장애인복지 현황

### 1) 개신교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박애정신을 깔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이웃에 전달해야 하고, 행동화 하는 실천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이웃을 방관자적 시각에서 보지 않고 적극적인 시각에서 수용하게 만든다. 불교처럼 이웃 포교에 소극적이지 않기에 장애인 1인을 선교하면 장애인 1인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 친구까지도 끌어들이 수 있기에 광범위한 선교철학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었지만 교회 자체에서 장애인복지에 폭넓게 지원이 이루어졌고, 한국 장애인복지 중 종교의 퍼센트를 가리자면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원인보다는 결과가 눈부신 지경이다.

원래 한국교회는 개인복음, 개인 구원을 강조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구원받는 신앙심이 지배적이었다. 즉, 수평적인 사랑이 아니라 수직적인 사랑을 강조하였으며, 따라서 맹목적인 기도와 교회 출석, 성경 읽기, 헌금을 강요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가 주어졌다. 하지만 계속되는 맹목적 선교에는 성공했지만 인간적인 수평적인 사랑에 대한 부족을 인간적인 복지, 인권, 봉사의 길에 매진하게 되면서 한국 개신교의 적극적인 봉사정신이 한 획을 긋게 되었다.<sup>20)</sup>

여기서 개신교의 복지, 장애인복지는 비대해 지는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은 해외로까지 풍부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한국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불우한 이웃에 많은 필요한 것을 나누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신교 사회복지와 교회사회복지로 나누어져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

---

20) 장재형 (1992) p.11.

고 있는 지금, 단순하게 기독교의 교회 성장에만 막대한 자금을 퍼붓지 않는다면 미래의 사회복지, 즉 불교계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장애인 복지도 종교성을 띤 성장은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

197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사회적인 모순과 불평등에 비판의식을 갖으면서 사회복지에 매진하게 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더 사회봉사에 매진하게 되었다. 이미 비대해진 큰 교회에서 실시하던 복지사업이 1990년대 들어서는 소규모 교회에서도 적극적인 봉사운동<sup>21)</sup>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구호사회봉사에 투자하고, 큰 교회에서도 자체적인 사회복지관을 짓고, 구호적인 프로그램 개발 기획과 조직 및 인력, 자원, 훈련 등 모든 면에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개신교 사회복지지는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것이다.

<표3-2> 기독교 지교회의 사회복지활동 내용

사회복지활동의 내용	빈 도	%	사회복지활동의 내용	빈 도	%
빈곤가족 지원	266	77.3	의료봉사팀 운영	27	7.8
수재민돕기, 불우이웃돕기	273	79.4	장애인 지원사업	93	27.0
무료유아원, 탁아소 운영	32	9.3	탁아소 및 경로당 지원사업	88	25.6
장학금 지급	220	64.0	교도소 방문	113	32.8
노인대학 운영	21	6.1	호스피스	7	2.0
지역사회를 위한 독서실 운영	24	7.0	사회봉사를 위한 교육사업	45	13.1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방문 및 지원	213	63.7	기 타	21	6.1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학교 운영	13	3.8			

출처 : 성규탁 외(1991). p262.

21) 전광현 (2003) p.19.

<표3-3> 기독교사회복지와 교회사회사업의 비교

		개신교사회복지	교회사회사업
공 통 점	근 거	성서적 신앙으로 출발한다.	
	관 점	일반사회사업 프로그램 전반을 개신교적 관점에서 활용한다.	
	주 체	개신교인이 주체가 된다.	
차 이 점	범 위	거시적이다.	미시적이다.
	초 점	개신교적인 신념체계를 중시한다.	교회라는 실천 현장을 중시한다.
	조 건	행위자의 신앙적 특징에 따라 결정된다.	행위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
	현 장	사회복지체제와 전체 사회를 현장으로 한다.	교회와 지역사회를 현장으로 한다.
	자 원	교회를 포함, 사회복지체제 자 원활용	교회의 자원을 주로 활용
	정 체	개신교인이 주체 또는 보조자가 된다.	교회가 주체, 비개신교인이 보조자가 될수 있다.
	논 제	동기와 철학, 목적이 중심 이슈다.	자원동원과 방법론, 조직적 체제가 중심이슈

출처: 전광현 (2003), 『기독교 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표3-4> 복지 분야별 교회운영 기독교 사회복지활동 프로그램

복지분야	구체적인 사업내용
아동복지(286)	선교원(137), 유아·유치원(93), 어린이집·놀이방(43), 공부방(8), 농번기탁아소(4), 보육원(1)
청소년복지(62)	공부방(27), 장학사업(15), 기숙사(8), 야학(3), 독서실(3), 계절학교(4), 문화학교(1), 중·고등학교(1)
부녀복지(25)	주부교실·주부대학(22), 직업훈련·취업알선(1), 모자원(1), 기타(1)
노인복지(97)	노인대학(65), 경로잔치(17), 양로원·유아원(10), 경로당(1), 급식프로그램(1), 노인부업알선(1), 재가노인봉사(1)
장애인복지(11)	장애인예배(5), 사회재활훈련(3), 상담(1), 취업알선(1), 장애인수용시설(1)
의료,정신의료 (23)	무료진료(14), 나환자사업(3), 보건위생·방역(2), 이·미용봉사(2), 재활시설(1), 병원봉사(1)
교정복지(4)	제소자서비스(1)
지역사회복지 (102)	신협(20), 주민 도서실(17), 시민대학(16), 농수산물 공동구매(12), 주민초청잔치(6), 마을소식지(5), 소득증대사업(4), 무료급식(4), 바자회(3), 인권·사회운동(3), 영농운동(2), 교회시설개방(2), 중고품교환(1), 공중목욕탕(1), 직장인예배(1), 결혼교실(1), 기타(2)
상담서비스(3)	가족상담(2), 노동상담(1)
특수선교(6)	공원선교(2), 도시빈민선교(1), 노동선교(1), 선교원 신학(2)

출처 : 김동배 (1994), 교회 사회복지사업의 실태, 방정숙 (2005), 불교 장애인복지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p.84. 재인용

## 2) 카톨릭

한국의 카톨릭교회 사회복지활동은 1854년 영해회<sup>22)</sup>에서 아동복지사업을 시작으로 수도회, 본당, 평신도, 사제 및 수도자 개인이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 카톨릭 사목지침서에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사회공동체적 활동이므로 사회복지의 자선활동뿐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제 222조 1항)”고 적고 있다.

카톨릭은 한국선교 초창기에(1885년)는 고아원과 양로원 위주로 사회사업이 이루어졌고, 차츰 의료, 청소년 선도, 이재민 구호사업등 소규모에서 단체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카톨릭은 정부의 사회복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놀랄만한 성장을 했지만 정부를 대신한 단체의 복지차원을 넘지 못했고, 정부의 비호아래 영향력 있는 사회복지단체로 머물렀다. 따라서 이런 모순을 카톨릭에서는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를 중점적으로 파고들었고, 2002년의 한국 카톨릭의 사회복지현황은 전국 620여 개의 시설과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구 사회복지회를 통해 15개 교구가 이들 사업의 교구 조정이 가능한 체제를 구비하고 있다.<sup>23)</sup>

카톨릭은 불교에 비해서 인적 물적 동원과 자원이 훨씬 용이하다. 카톨릭에서 본다면 재정적으로 다소 어렵게 느끼지만 본당의 강력한 지원아래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에 폭넓게 매진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표3-5>으로 정리해 보도록 한다.

---

22) 1843년 프랑스 파리에서 홀본 잔송(Holbon Jansong)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버려진 아이들이나 죽음에 임박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살아나면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기르도록 하는 어린이 구호사업단체 성영회(Sancta Infantia)의 한국명이다.(가톨릭 대사전, P. 650.)

23) 이준상 (2003) p.50.

<표3-5> 시설의 운영주체별 분포 및 변화 추이

구분		2002년			1999년		증감
		개소	분포	유효분포	개소	유효분포	
운영 주체	교구	256	41.3	42.7	126	24.9	130
	수도회	221	35.6	36.9	227	44.9	△6
	성직자개인	8	1.3	1.3	11	2.2	△3
	본당	26	4.2	4.3	20	4.0	6
	평신도	55	8.9	9.2	78	15.4	△23
	기타 법인	19	3.1	3.2	35	6.9	△16
	기타	14	2.3	2.3	9	1.8	5
	계	599	96.6	100.0	506	100.0	93
무응답		21	3.4	-	18	-	-
계		620	100.0	-	524	-	96

<표 3-6> 가톨릭 본당 사회복지 활동 내용

사회복지활동의 내용	빈도	%	사회복지활동의 내용	빈도	%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287	76.1	자선 진료기관 소개	59	15.6
시설방문, 지원 및 노력봉사	255	67.6	노인대학 운영	51	13.5
소년소녀가장 지원	213	56.5	수용시설 운영	47	12.5
경로잔치	188	49.9	무의탁자를 위한 무료식사 제공	36	9.5
병원방문	182	48.3	이용시설(유아원, 놀이방, 어린이집, 공부방, 야학, 무료진료소 등)운영	36	9.5
의료비 지원	150	39.8			
장학회 운영	120	32.8	상담실(노동,법률, 가정문제)운영	25	6.6
임종노인을 위한 봉사(호스피스)	103	27.3	취업알선	22	5.8
재가복지(심부름, 빨래, 청소)	97	25.7	입양 및 사랑의 부모 결연사업	13	3.4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문제 상담	65	17.2	장애인 재활교육	8	2.1
긴급재해구호활동	65	17.2	기 타	28	7.4

출처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1997), p.69.

### 3) 기타종교

원불교 교전에 나타난 장애의 견해로는 첫째, 장애현상을 불완전한 상태인 불구로 보고 있다. 둘째, 장애원인에 대해서는 윤회사상을 기저에 깔고 전생의 업보를 장애원인으로 보는 인과응보에 수렴되고 있다. 셋째, 장애를 인식하게 하는 신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보고 있다. 즉 완전하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이며, 자력 생활을 위한 기관으로서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자본이 되는 것으로 본다. 넷째, 장애의 개념에 대해서는 손상을 입어 육체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능력장애의 차원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해부학적 의료적 기준으로 정의하는 장애 개념과 대체로 유사하다.<sup>24)</sup>

자선복지사업으로는 교단원로정양시설 5개소, 노인복지시설 52개소, 종합사회복지시설 15개소,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 보육수용시설 5개소, 후원 및 후견시설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종합병원, 한방병원, 보화당한의원 등 22개의 의료기관에서 은혜심기운동을 전개하여 이웃 사랑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는 원기66년 6월29일 설립. 삼동회 설립은 그동안 교화·교육사업에 비해 소극적이었던 자선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교단의 의지 표현으로 시작했다.

원불교 창필재단은 원기67년 3월 설립. 창필재단은 기존 한국보육원의 육아시설에 휴양시설, 보호아동 장학사업 등 부대사업을 전개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유린보은동산은 원기75년 2월6일 발족. 유린보은동산은 사회복지법인

---

24) 강일조 (2002) p.23.

유린새마을유아원을 중앙청운회가 전개하고 있는 보은동산운동과 연계시켜 확산할 목적으로 변경, 설립했다.

원봉회는 원기81년 9월9일 설립. 원봉회는 제주교구 표선교당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설립한 법인이다.

중도원은 원기82년 3월13일 설립. 중도원은 그동안 복지사업의 불모지인 지체장애인 재활을 목적으로 한 사회봉사 실천교화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중도원에는 성인지체생활시설인 동그라미재활원 등이 있다.

원봉공회는 원기83년 6월17일 설립. 원봉공회 설립은 교단적으로 활동하던 봉공활동을 대사회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됐다. 전국 각 교구에 13개 지회를 두고 있는 원봉공회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지원과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상에서 언급한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의 특성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3개 종교계 모두 종단 내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조직적 기반은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종단에 따라서는 조직적 기반과 그에 따른 기능이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각 종단은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구조 체계는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3개 종교계가 종단 차원에서 사회복지에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외에 종교계내 조직을 이용한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이 질적, 양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 사회복지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려자를 위한 급식 및 상담, 나환자나 결핵환자를 위한 정착마을, 그리고 AIDS환자를 위한 쉼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이러한 종교계의 역할은 대표적 민간부문으로서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 수행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종단 내 기초 단위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종단 내 기초 단위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활동은 아직은 구호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앞으로 종교계가 사회복지에 참여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참여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기존 종교계 내의 재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기독교(장로교회)는 재해구호 헌금과 연말연시 특별구호 헌금, 사회봉사주일 헌금을 통해 사회복지를 위한 특별헌금을 제도화하고 있고,<sup>25)</sup> 가톨릭에서는 사회복지주일 헌금, 자선주일, 사순절 2차 헌금,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헌금을 사회복지 관련 재원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에 소용되는 비용은 교회 및 사찰 예산의 10% 이하이다.

기독교는 7.8%,<sup>26)</sup> 불교는 1.7%,<sup>27)</sup> 가톨릭도 평균 10%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를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각 종교계는 사회복지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 예산 규모의 10%를 사회복지비

---

25) 김동배 (1994) p.360.

26) 성규탁 외 (1991) p.192.

27)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 (1996) p.53.

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종교계 내 각 조직간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각 종교계는 사회복지에 대한 상부 및 하부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직이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직 단위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는 각 조직 단위들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의 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대표성을 띤 중앙 단위 조직에서 조직 간의 정보교류 및 연합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기구를 새로 만들 수도 있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개방적 접근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의 종교계는 그동안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대한 운영을 통해 주로 사회복지에 참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운영은 종교계 내 법인이나 재력 있는 신자 혹은 신도단체에 의해 운영되었다. 반면, 각 종교의 기초 조직 단위가 존재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에는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종교계가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사회의 욕구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가야 한다.

넷째,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종교계는 전문성 없이도 숨어서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전문화의 시대라고 할 만큼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에 대한 논의가 일반화됨은 물론 수혜자들의 욕구 또한 복잡해짐에 따라 과학적 접근에 근거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종교계 내 조직에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전문적 접근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성직자들(목사, 신부, 스님)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기존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 성직자들의 태도가 종교계 사회복지 활성화의 저해요인이며,<sup>28)</sup> 사회복지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응답자의 92.8%가 성직자의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고 함으로써,<sup>29)</sup>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에 있어 이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성직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각 종교계 내 신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신자들은 종교계가 사회복지 참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서, 후원과 자원봉사는 물론 사회복지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교계 사회복지활동을 침체시키는 원인으로서 신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부족이 지적되었다.<sup>30)</sup> 따라서 각 종교계 내 조직은 신자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곱째,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재정상태가 취약한 비인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비인가시설은 총 293개로서 이중 개인과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각각 152개소와 8개소이고, 기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73개, 가톨릭이 53개, 불교가 7개소이다.<sup>31)</sup> 이들 비인가시설은 1998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에 의해 신고제로 바뀌면서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28) 성규탁 외 (1991) p.265, p.289.

29)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1997) p.73.

30)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 (1996) pp.55~56.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1996) p.139.

31) 변용찬 (1996) p.58.

폐쇄하게 되어 있다. 비인가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시설의 수용자들의 보호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각 종교계는 신고조건이 안되는 비인가시설을 교단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복지에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여덟째, 정부와의 의사소통 통로를 개설하여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수동적으로 대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가 할 수 없는 시범적 복지사업을 대안의 형태로 제안하는 등의 종교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종교계가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해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를 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98년 발족된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는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와 관련하여 정부와 종교계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표적 민간사회복지 부문인 종교계는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 재정 부족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정부가 할 수 없는 국민의 공통적 욕구 충족을 위한 것,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시급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사회문제 등<sup>32)</sup>에 관심을 갖고 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3.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은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 장애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

32) 최성재 (1994) pp.254~257.

## 1) 의료 문제

장애인수에 비해 장애인을 위한 특수의료시설 및 재활기관, 이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행위별 의료수가체계를 가진 현행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기능훈련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수가가 비급여 부분인 경우가 많아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방문, 치료, 상담 등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임신, 출산 등의 과정에서 모자보건활동을 통한 장애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 2) 교육과 가족생활의 문제

장애인이 보통의 생활환경 속에서 보통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977년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종류와 정도에 따른 특수 교육시설과 내용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1989년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교육시설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장애인의 취업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름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장애인 중에서 시설의 수용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애인이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다. 장애인의 부모들은 자녀가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전전긍긍하면서 각종 예방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정되거나 영속화되는 경우 심한 충격을 받게 되고 가족들은 고통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공식적 논의는 1989년도 마련된 장애자복지종합대책이다. 이는 정부가 공급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 있는

전달체계에 관하여 장애인 복지관련 부처 간의 업무의 협조와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에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회복지 직렬화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지적되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논의를 적극 수용하여 1996년 국무총리실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부처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실무위원회가 상설되지 않고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상정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실무적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지속적으로 정책간의 연계성을 꾸준히 조정, 통합해 나가는 실제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의 양적인 팽창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질적 발전을 수반하였으나 정책의 발전이 실제 정책수요자의 실제적 욕구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앙부처차원에서 정책적 연계성부족, 행정기관 간의 역할배분의 부적절, 담당인력의 절대적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정책 간의 상호연계성의 미흡이다. 둘째, 보건복지부의 정책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관리운영기능 간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의무고용제가 실시된 10년이 지난 현재 장애인고용정책은 전달체계 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직업재활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이원화이다. 둘째,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셋째, 장애인직업재활 관련 인력 양성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 3) 사회적 편견과 차별

우리가 사는 사회는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규정을 정상이라 하고, 그러한 표준에서 크게 벗어날수록 이상으로 보는 관습이 있다. 다수자인 정상집단에 의해서만 모든 가치규범이 획일적으로 정해지고 일반적으로 강요되는 사회에서는 이 표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소외집단으로서의 장애인을 그 개인이 가진 신체적 장애와 함께 사회적 부담과 사회의 장애의 무거운 짐을 지고 더욱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식 그리고 환경시설의 문턱이 높을수록 장애인은 더욱 적응하기 어렵게 되며, 그만큼 더 많은 장애인을 사회가 만들어 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표3-7>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 장애 유형별

(단위:명,%)

구분	전체	비율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이다	약간 많다	매우 많다
전체	2,137,226	100.0	0.1	5.3	14.8	38.6	41.1
지체	1,132,116	100.0	0.1	5.6	14.4	38.1	41.8
뇌병변	219,156	100.0	0.5	5.8	17.1	39.4	37.2
시각	220,061	100.0	0.0	5.3	17.6	39.0	38.0
청각	207,383	100.0	0.3	5.7	16.3	42.3	35.5
언어	15,103	100.0	0.3	5.3	12.0	36.4	46.0
지적	140,079	100.0	0.0	2.9	9.8	35.4	51.9
자폐성	12,329	100.0	0.2	0.1	8.1	33.3	58.2
정신	84,780	100.0	0.0	3.7	12.7	39.1	44.5
신장	48,284	100.0	0.7	7.0	14.8	38.0	39.5
심장	14,606	100.0	0.0	6.2	15.7	39.5	38.6
호흡기	14,393	100.0	0.4	6.5	13.4	44.5	35.2
간	6,514	100.0	0.0	4.5	15.6	37.8	42.1
안면	2,185	100.0	0.0	1.9	3.8	33.5	60.9
장루·요루	11,356	100.0	0.0	7.9	16.9	42.3	32.9
간질	8,881	100.0	0.4	2.9	7.9	38.9	50.0

출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9), p.265.

장애인의 조건에 맞는 편의 시설이나 사회적 시설을 다양하게 충족시켜 주고, 일반사회인의 장애인에 대한 높은 편견의 벽이 허물어진다면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사회에 적응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해나가고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들을 장애인이라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이며, 사회적 장애인도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장애현상은 신체나 기능손상을 통한 장애뿐만 아니라 그 장애를 통해서 사회적 참여가 어려워질 때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개인이 가지는 장애의 특성들과 그 사회의 특성들은 장애의 현상을 만들어 내는데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장애라는 것은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과 사회와의 밀접한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장애 현상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의 타인들도 역시 그와의 상호소통이나 관계에 있어서 장애를 느끼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만하지 못한 상호소통관계는 그 불편함에서 오는 상호적인 장애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고, 상호관계 그 자체가 장애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장애라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공동으로 가지게 되는 문제이며, 사회적인 문제다.

그리고, 비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장애인 그 자체가 언제 자신의 문제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장애나 장애인의 문제가 결코 남의 문제,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 또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누구나 크건 작건 부분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비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 면에서는 장애인이요, 문제를 가진 인간 존재임을 자각하면서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나누고 있고, 따라서 마스크에서 더 많이 확산시키는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바로 옆집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인종이라도 같은 이념의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가 싹트고 더 나아가 편견 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전에는 개인의 업(業), 집안의 흥이라고까지 여기던 신체적 장애(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를 많은 부분 비장애인들도 ‘나도 언제 어느 때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장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사고 등의 위험 부담 요소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한 장애는 본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나 환경으로부터 빚어지는 결과로 보아야 한다.<sup>33)</sup>

따라서 장애인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공통문제가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장애현상이나 장애인의 문제에 적절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회적 대책과 방안을 세워 효과적인 장애 해결의 장으로 사회가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

33) 방정숙 (2002) p.31.

## IV. 불교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 1. 불교장애인 복지의 현황

불교계 장애인복지시설은<sup>34)</sup> 주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해방 이후 설립된 장애인복지시설로는 부산의 자혜정신요양원(1953)이 있는데, 1968년 성보복지재단으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주로 정신질환자의 수용 보호 및 심신장애자의 재활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불교계의 후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1962년에 설립된 영락정신요양원의 경우도 사회복지법인 동영원에서 운영 중인데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1965년 설립된 성우원(사회복지법인 성우원)은 18세 이상의 정신지체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 자체 충당금, 불교계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설에는 불자들을 위한 법당이 있다.

이 밖에도 제주 보천사의 무의탁 정신질환자 수용시설(1966), 대성요양원(1981), 여주 나환자촌(1982), 해남 신혜정신요양원(1986), 승가원 소쩍새마을(1982), 천안 정신요양원(1982), 자연동산 제주요양원(1992) 등이 있다.

지체장애인 복지시설로 경주 성양원(1988)이 있는데, 결핵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시설이다.

장애인 돕기 후원사업을 전개하는 단체로는 재단법인 조계종 보현원(1980), 불교사회복지 봉사회(1986), 불광사 사랑의 복지교실(1989), 불교간병인협회(1992), 대한장애인 불교복지회(1993) 등이 설립 운영 중이다.

장애인 종합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불교시설에는 제주 장애인 종합

---

34) 김응철 (2000) pp.17~28.

복지관(1987)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1995)이 있다.

거제도 치자마을(1993)은 지체장애인생활시설인데 현재는 정련 스님이 반야원(2004)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설을 증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가원은 원주 소쩍새마을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것으로 현재는 산하에 종합복지관과 어린이집을 비롯한 일반 복지시설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승가원은 장애인복지사업에 중점을 두어 장애아생활시설 상락원, 장애아주간보호센터 녹야원, 정신 장애인을 수용하는 성북 그룹홈, 맹인 그룹홈, 순회재활센터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 후 여러 시설이 불교계 장애인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보조금, 자체충당금, 불교계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불자들을 위한 법당도 마련되어 있는 시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은 일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직접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인복지는 장애 유형별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생활 및 시설의 이용 여부가 결정되며, 자원봉사자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불교계의 장애인복지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도들의 후원을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사업은 종교, 특히 불교 사회복지 이념에 비추어서도 그 특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종교의 사회적 기능인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예전의 한국과 같은 유교사회에서는 대식구가 이웃과 더불어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다. 하지만 지금은 물질적 풍요시대를 맞이하여 인심은 점점 각박해지고, 부모와 형제지간에도 소원해 지고 있으며, 이웃의 개념까지도 벽에 부딪히고 있다. 여기에서 오는 소외감, 불안, 공포, 즉 정신적인 갈구에서 인간은 종교를 찾게 되고 자신과 합치되는 종교관에

서 오는 정신적인 소외감을 같은 종교관으로 무장된 종교인끼리 나누고, 다시 공통적인 종교관인 자비와 사랑을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게 된다.

불교는 한국의 전통종교로서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에 나라의 흉년이나 환란이 있을 시 기본적인 자비정신으로 고아, 극빈자, 난민 등을 수용하고 양육하며 활발한 구제 사업에 앞장섰다.<sup>35)</sup>

조선시대는 송유억불로 종교적인 행사는 축소되었지만 구황청(救荒廳), 활인서(活人署), 기로소(耆老所) 등 사회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해방 후에는 혜명보육원(도선사), 혜능보육원, 양주 광명보육원, 경주의 대자원, 시흥의 대각사보육원, 부산 정화양로원, 제주 제주양로원, 대구 화성양로원, 부산 천마재활원, 소쩍새마을, 승가원 등이 설치되어 활동하였으나, 인적 구성이 방대한 타종교에 비해 지도자 스님들의 기관에 대한 소극적인 처세와 기독교와 카톨릭에 비해 자원봉사자나 재정적인 빈곤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원구성이 미비한 현재의 불교활동은 <표4-1><표4-2><표4-3>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기여도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

35) 이정호 (2003) p.111.

<표4-1> 종교별 사회복지(9종)시설법인 현황분석

순 위	구 분	시설 합계() =종교 전체 종교별 점유 율 (%)	전체수 용전원 합계() =종교전 체중종 교별점 유율 (%)	전체수 용인원 대비저 유율 (%)	(1) 장애시설		(2) 장애인복지 시설		(3)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수용 시설 (=수용 시설	진료수 용(=정 착촌 수용시 설	개 수	수용 인원	개 수	수용 인원
1	기독교	461 (73.5)	57,966 (64.4)	37.2	5(3)	3420 (1,736) (19.3%)	17	1,527 (35.9%)	67	15,983 (91.5%)
2	천주교	112 (17.9)	25,413 (28.2)	16.3	9(2)	5,398 (2,745) (32.4%)	22	2,509 (58.9%)	0	0
3	불교	37 (5.9)	4,399 (4.9)	2.3	-	-	1	220 (5.2%)	5	1,237 (7.1%)
4	원불교	17 (2.7)	2,213 (2.5)	0.6	-	-	-	-	1	240 (11.4%)
소 계	(%)	627 (100)	89,991	57.9						
5	기타	203 (22.6)	65,815 (42.1)	42.2	13	11,827 (1,100) (48.3%)	-	-	-	-
합계		830 (100)	155,806 (100)	100	27 (5)	21,185 (5,581) (100%)	40	4,256 (100%)	73	17,460 (100)

출처:사회복지신문(김홍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 연구소장 자료정리)

<표4-2>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시설의 분야 및 형태

분 야	종교별 분포			형태 및 특징
	기독교(예장)	가톨릭	불 교	
아동복지	72	100	76	어린이집, 보육원, 일시보호소, 입양원, 공부방 등/불교의 경우 10개소를 제외한 모두가 어린이집
청소년 복지	5	62	31	공부방, 독서실, 결손가정보호시설, 일시 보호시설, 직업훈련, 청소년수련원 등
노인복지	20	83	35	양로원, 요양원, 노인복지관, 노인정, 무료급식소, 주간보호센터, 노인대학, 재가복지센터 등
장애인 복지	22	127	26	요양원, 재활원, 마을, 조기교실,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기관,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 자립작업장, 재가장애인지원기관 등
여성복지	11	19	-	미혼모보호시설, 모자원, 쉼터, 직업훈련, 공동체, 여성교육단체 등
지역복지	52	23	32	종합복지관, 신용협동조합(기독교예장의 45개가 신탁)
행려자/ 부랑인 복지	-	51	3	보호시설, 소공동체, 무료급식소
의료/ 정신 의료복지	6	22	-	병의원, 병원사회사업과, 가정호스피스
결핵 복지	-	7	-	요양원, 자활촌
나환우 복지	-	29	-	병의원, 나환우시설, 정착마을
교정 복지	-	1	-	무의탁출소자재활시설
기 타	7	37	65	사회복지사업후원회, 상담사업, 기타 복지 단체 등
계			268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1994). 교회사회봉사총람/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의 전송자료/한국가톨릭 사회복지 실태와 전망(1997) 연구시 수집한 기관목록을 참조하여 작성함.

<표4-3> 종교계 사회복지기관·시설 운영 실태

구 분	사회복지시설 법인 수	법인과 비법인 포함한수	비고(종교인구수 비율)
기독교	461	* 195	36.4%
가톨릭	112	** 561	11.8%
불 교	37	*** 268	48.8%

\*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1994). 교회사회봉사총람. pp.29~30.을 참조로 저자가 집계함(지교회의 교회 내에서의 활동은 제외했음/예장통합만의 수치임)

\*\* 출처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1997). 한국가톨릭 사회복지의 실태와 전망. p143.

\*\*\* 출처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집계한 것임(1998)

특히, 불교사회복지는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면에서는 다른 복지프로그램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표4-4>, <표4-5>, <표4-6>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가 매년 늘고 있긴 하지만 그 증가율은 미비하다. 카톨릭이나 개신교는 서방세계의 체계적인 복지교육과 종교적인 지원에 힘입어 불교에 비해 월등한 시설과 프로그램, 민첩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어려운 현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쉽게 동화되고 흡수되어 종교관 까지 스며들어 기독교는 그 세력 확장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불교 사회복지의 유래는 오래되었지만 프로그램화 되지 못하였고, 영역화 되지 못하였다. 이제라도 종교차원에서 또는 사회환원 차원에서 시작이라는 모토 아래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표4-4> 불교내에서의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지역	합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지역		기타	
	시설	종사자	시설	종사자	시설	종사자	시설	종사자	시설	종사자	시설	종사자	시설	종사자	시설	종사자
서울특별시	52	723	24	256	7	45	5	134	2	72	0	0	6	154	8	62
부산광역시	1	5													1	5
인천광역시	0	0														
대구광역시	1	2					1	2								
대전광역시	2	22					1	17							1	5
광주광역시	4	75							1	36			2	33	1	6
울산광역시	0	0														
경기도	14	302	4	45			5	120	1	45			2	82	2	10
강원도	4	101					1	30	3	71						
충청남도	3	34	1	8			2	26								
충청북도	1	28							1	28						
전라남도	8	146	1	26			4	74	1	26			1	14	1	6
전라북도	2	29					1	19					1	10		
경상남도	4	54					1	7	1	26						
경상북도	19	292					6	69	4	115			4	68	3	23
제주도	0	0														
합계	115	1813	34	373	7	45	27	498	14	419	0	0	16	361	17	117

출처 : 통계자료집 (2008), p.47.

**<표4-5>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전년 대비 증감)**

(단위 : 곳, 명)

구 분	2007년	2008년	증감	증감율
시 설	105	115	10	9.5%
종사자	1,446	1,813	367	25.4%

출처 : 통계자료집 (2008), p.48.

**<표4-6>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증감 추이**

(단위 : 곳,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시 설	94	96	96	105	115
종사자	1,196	1,350	1,350	1,446	1,813

출처 : 통계자료집 (2008), p.49.

**2. 불교장애인복지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위험수위까지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후천적 장애로서 일단 장애인이 되면 의료비로 가산이 탕진되고, 쉽게 저소득층으로 흡수된다.<sup>36)</sup>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불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복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아직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은 장애인의 편견이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태부족이고, 인식까지는 많이 좋아진 형편인데도 소풍갈 때조차도 이동수단이나 장소 섭외에서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해서 도우미들의 섭외도 만만치가 않다. 장애인의 프로그램은 하나하나가 모두 비장애인의 봉사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sup>36)</sup> 방정숙 (2005) p.69.

모든 문제에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규정을 정상이라 하고, 그러한 표준에서 크게 벗어날수록 이상으로 보는 관습이 있다. 다수자인 정상집단에 의해서만 모든 가치규범이 획일적으로 정해지고 일반적으로 강요되는 사회에서는 이 표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소외집단으로서의 장애인을 그 개인이 가진 신체적 장애와 함께 사회적 부담과 사회의 장애의 무거운 짐을 지고 더욱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식 그리고 환경시설의 문턱이 높을수록 장애인은 더욱 적응하기 어렵게 되며, 그만큼 더 많은 장애인을 사회가 만들어 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의 조건에 맞는 편의 시설이나 사회적 시설을 다양하게 충족시켜 주고, 일반사회인의 장애인에 대한 높은 편견의 벽이 허물어진다면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사회에 적응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해나가고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들을 장애인이라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이며, 사회적 장애인도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장애현상은 신체나 기능손상을 통한 장애뿐만 아니라 그 장애를 통해서 사회적 참여가 어려워질 때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개인이 가지는 장애의 특성들과 그 사회의 특성들은 장애의 현상을 만들어 내는데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장애라는 것은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과 사회와의 밀접한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장애 현상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의 타인들도 역시 그와의 상호소통이나 관계에 있어서 장애를 느끼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만하지 못한 상호소통관계는 그 불편함에서 오는 상호적인 장애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고, 상호관계 그 자체가 장애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장애라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공동으로 가지게 되는 문제이며, 사회적인 문제다. 또한, 비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장애인 그 자체가 언제 자신의 문제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장애나 장애인의 문제가 결코 남의 문제,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 또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장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사고 등의 위험 부담 요소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한 장애는 본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나 환경으로부터 빚어지는 결과로 보아야 한다.<sup>37)</sup>

따라서 장애인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공통문제가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장애현상이나 장애인의 문제에 적절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회적 대책과 방안을 세워 효과적인 장애 해결의 장으로 사회가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의 문제점은 불교적 관점과 구분되어 생각할 수 없는 만큼 포괄적으로 접근하되 불교 장애인복지의 근간에서 문제점을 몇 가지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불교적 프로그램 부족

불교적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유교사회에서는 대식구가 이웃과 더불어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지만 지금의 물질적 풍요시대는 인심은 점점 각박해지고, 부모와 형제지간에도 소원해 지고 있으며, 이웃의 개념까지도 벽에 부딪히고 있다. 여기에서 오는 혼자라는 소외감, 불안, 공포, 즉 정신적인 갈구에서 인간은 종교를 찾게 되고 자기와 합치되는 종교관에

---

37) 방정숙 (2002) p.31.

서 오는 정신적인 갈구에서 인간은 종교를 찾게 되고 자신과 합치되는 종교관에서 오는 정신적 소외감을 같은 종교관으로 무장된 종교인끼리 나누고, 다시 공통적인 종교관인 자비와 사랑을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게 된다.<sup>38)</sup>

장애인에 대한 시설은 여러 부분에서 많은 재정의 필요성을 요한다. 하지만 정부결재나 모금은 절대 부족으로써 최소한의 여건마저 난관에 부딪치게 만든다. 거기에다 불교 종단 차원의 지원 또한 아직 미숙하고 봉사자나 비장애인의 모금이 열악하다.

## 2) 재정문제

가장 문제의 핵심은 재정문제이다. 적은 예산으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는 난감한 일이 더러 생긴다. 예를 들어 운전교습이라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교습소 섭외나 청각 장애인, 또는 시각 장애인에 맞는 자동차 구입부터 모든 것은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사회의 소수 문제로서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자신들의 기본적으로 대다수가 빈곤자라는 개념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보조금도 타 복지관보다 많은 부분 적게 책정되어 있어 장애인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은 타 복지시설보다 더 많은 재정을 요구하고, 종교별로 본다면 기독교에 비해서 불교는 아직 장애인복지가 걸음마 수준이어서 그 재정의 빈곤은 장애인 가족만큼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창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

38) 이정호 (2003) p.64.

### 3) 취업지원 부족

우선 강사진의 부족이다. 이 문제 역시 재정의 빈곤이 낳은 결과겠지만, 적절한 대우의 부족으로 능력 있는 강사의 초빙이 매우 어렵다. 또, 초빙이 가능해도 충분한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잦은 강사의 교체로 이어지고, 잦은 강사의 교체는 이어지지 않는 교육으로 인한 반쪽짜리 교육으로 제대로 된 교육의 부재로 이어진다. 또한 현장 실습이 부족하다. 타 복지관이나 타 복지보다 어렵고 빈곤한 실정에서 더 넓고 이동의 편리함을 갖춘 실습장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겨우겨우 섭외가 되더라도 역시 재정의 빈곤으로 같은 어려움이 반복된다. 실습실의 부족은 실력을 쌓을 기회의 박탈을 초래하고 취업을 위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이것은 다시 한 장애인 가정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업을 위한 현장교육을 모두 마치고 나서도 가장 중요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실 장애인의 대부분이 빈곤자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지경이어서 복지관을 찾는 것조차 어렵고, 또한 장기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것도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제대로 교육을 마쳐도 취업 자리를 얻는 것은 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직업교육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짚어보도록 한다.

#### (1)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즉, 산재보험에 의한 직업교육시설 부족.

#### (2) 재정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직업재활기관의 예산 강화, 장애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의 심층화된 재정지원, 물적 지원의 개선, 장애인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의 현실화.

#### (3) 지역장애인직업교육시설의 부족 및 내실화 문제이다.

직업재활시설의 지방 설립,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소규모 기관의

설립.

(4) 전문가부족.

전문가의 부족으로 직업재활관련학과의 확대와 향상교육과 전환교육의 실시, 전문가의 처우 개선, 실질적인 외국연수교육이다.

(5)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의 미비.

효과적이며 실제적인 직업탐색프로그램의 개발, 적응훈련을 위한 재정 지원, 개별화된 직업교육, 사회훈련의 내실화, 최대한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6) 상담문제.

심도 있는 초기상담과 계속되는 평가프로그램의 개발, 직업을 소개할 때 사업체의 근로조건에 대한고려, 노동부와 연계된 직업소개이다.

(7) 교과과정.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한 교과과정의 개선, 자격시험측정 방법의 다양화,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훈련강화,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강화, 자기 신뢰성의 강화, 여가활용, 동아리 지원, 서비스 산업분야의 직업교육과목 개발, 평생교육형태의 계속교육과 전환교육이다.

(8) 교수법.

핵심자질과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법의 실행이다.

(9)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미비.

장애인 프로그램의 미비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탐구, 중증장애인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일반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기회의 증대, 직업교육 자격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묘사, 장애종류에 따른 다양한 교육형태, 유연성과 지속성을 가진 중증장애인의 재활이 필요하다.

(10) 자원봉사.

장애인복지 활동을 위한 지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V. 불교장애인복지의 활성화 방안

### 1.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제도적 지원

장애인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실질적인 복지수준의 발전을 위해 1998년부터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계획은 2002년에 마무리 되었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확정되어 시행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시행될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마련을 위하여 정부 17개 부처와 학계, 장애인단체 등에 실무회의 참석과 의견조회를 요청하였다.<sup>39)</sup>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개년계획의 6대 분야는 생활안정지원, 고용, 사회참여, 복지, 교육문화, 총괄모니터링 및 장차법이다. 한국장총은 각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단체의견서를 작성, 1월 18일 보건복지부(분야별 회의)에 제출하였다. 또한 농아인협회와 시각장애인연합회의 건의사항을 각각 수렴하여 정부에 함께 전달하였다.

6대 분야 중 생활안정지원분야는 장애인대상 세제, 요금감면제도 확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주거서비스 확대에 대한 의견 등이며, 고용분야는 2차5개년계획 사업매듭을 위한 평가, 직업재활기금 복지부 이전에 따른 장단기계획, 정부·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계획마련,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차별 없는 Work-Together 일터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사회참여분야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접근보장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함께 아우르는 접근성의 총체적 접근,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화, 적극적 사설문화시설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고, 복지분야

39) 보건복지부 발표문 참조 (2008)

에서는 판정체계 개편, 장애인보조기구 관리체계 구축 및 품질관리, 장애인복지시설 개편, 장애아동 보육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및 권익증진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교육·문화분야는 장애인교육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통합교육 강화, 장애인진로보장 체계 확립,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 문화바우처 사업 확대, 장애인체육시설 인프라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총괄·모니터링·홍보분야는 장애인정책 총괄 조정체계 개편, 전달체계 개편, 외국인 장애인 서비스 확대, 3차 추진실적 정기 점검, 차별금지법 이행상황 모니터링,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교육강화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탁상공론으로 끝날 수 있다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관한 정부시책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장애인복지의 일부로 들어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시대를 살고 있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가정, 시설, 지역사회, 국가 등 환경차원을 고려해 각각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장애인복지정책과 제도적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의료재활서비스의 확대

의료재활은 장애인 재활과정의 시작이고 기초가 되므로 먼저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며, 장애의 치료와 신체의 잔존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의료재활 서비스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일반 장애인보다 더욱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의료재활 서비스가 더욱 필요하다.

서비스의 종류로는 입원을 통한 재활, 외래를 통한 재활, 지역사회중심

재활 이 있다. 입원을 통한 재활 서비스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환자는 재활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입원은 정신적 육체적인 포괄적인 치료와 향후 재발이나 기능의 손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대감을 고취시킨다. 외래를 통한 재활은 입원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환자는 외래를 통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치료 서비스를 말한다. 지역사회중심재활 서비스는 장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최대한 활용을 하여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즉, 장애인 자신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은 의료보호대상이 적어 정부에서 진료기관에 지불해야 할 치료비 체납과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차별대우로 의료보호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보험체계는 치료중심(고가의 약물)에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빈곤층인 장애인은 치료에서도 더 비곤함에 처해가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종합병원은 의료재활이 의무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 종합병원의 약 20% 정도에 불과해서 재활서비스를 공급할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의료재활 전달 체계의 문제점도 있는데 이는 장애인들이 쉽게 찾아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도 대부분의 재활시설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활인력자원인 전문의의 부족으로 인해 재활 치료에 필요한 인력수급에 막대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의료재활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3차 의료기관의 개선이 필요하다. 종합병원에는 3차 진료인 재활의학과와 모든 진료가 가능하게 진료과목이 개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3차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강제 설치의 의무화를 적극 추진해야한다.

둘째 2차 의료기관 중 대규모 종합병원에서의 재활의학과 설치 적극 유도를 해야만 한다. 2차 의료기관에서의 재활의료서비스 공급은 쉽지 않으므로 양질의 서비스 요구는 힘든 처지다. 따라서 300병동 이상의 병

원에서의 재활의학과와 의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재활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재활분야 보상체계의 세분화 및 다양화로 장애인의 본인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포괄적인 재활서비스 공급이 요구된다.

## 2) 교육재활서비스의 충실

일반아동에 비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기능이나 정서에 심한 결함이 있는 아동에게는 이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아동의 능력에 맞는 특수한 교육적환경과 교육방법을 마련하여 이들을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아동과 성인은 교육을 통한 재활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공적 교육기관이나 센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은 교육을 통한 자기개발의 기회가 박탈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재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찾아가는 서비스와 그들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 3) 직업재활서비스의 충실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사회의 통합에 가장 절실한 필수요건이며, 최대 과제인 동시에 장애재활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적성에 알맞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재활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선택권의 보장 및 장애인 고용율의 제고로 직업을 통한 사회통합목표의 실현과 직업

재활방안의 과제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반사업체에의 고용확대 강제규정은 사회통합 지향적 고용의 확대와 정상화의 이념을 강구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과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규정과 전문인 양성에 관한 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 이직률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은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들의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사회복지사들의 협력을 통한 직업재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4) 장애인 경제적 부담경감시책

- (1) 생계보조수당 지급
- (2) 의료비 지원
- (3) 자립자금 대여
- (4) 자녀교육비 지원
- (5) 보장구 무료 교부
- (6) 자동차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면세
- (7) 전화요금의 감면
- (8) 철도 및 지하철도요금 할인
- (9) 항공료 할인
- (10) 국립립박물관 및 고궁, 공원 등의 무료입장
- (11) 장애인용 승용차 LPG 사용

#### 5) 재가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중심으로 보호계획을 위해서

시설직원의 행동규범이나 윤리강령을 만들고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시키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보호대상자 보편화와 확대를 위해서는 소규모 단기보호시설과 대규모 전문적인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형태와 체계를 세워야 한다.

시설운영 주체의 다양성을 강조하여 시설의 난립, 질적인 저하, 인권침해, 행정지원 부족 등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시설 보호대상에 맞게 형태나 재정,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숫자를 결정하고, 시설도 그에 맞게 자격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시설장애인 수준을 최소한 그 지역 주민의 최저수준에 맞게 정부지원에 맞출 것이 아니라 지역적 수준에 맞추어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향후 사회복지영역은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로 투입한 자원 점검, 통제, 효율성의 평가를 중시하므로 질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수다. 따라서 지표내용에 대한 업무중심으로 질적 저하가 예상되므로 시설보호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양식과 실시방식의 개선에 중점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 2. 범종단차의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불교사회복지는 불교를 주체로 하는 복지활동이고, 불교정신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사회적 실천이면서 사회복지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복지의 대상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실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자비의 실천을 바탕으로 사회적 구제가 활발하게 시행되었으며, 사원에서 승려에 의한 구제사업들이 많이 행해진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 이래로 많은 불교의 사회복지 실천 활동들이 정작 오늘날에 와서는 불교가 사회의식이 희박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소홀하다는 비판과 함께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

불교는 어디까지나 보편적인 삶으로써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중생의 철저한 깨달음을 통한 최고의 행복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실천에는 무관심한 듯이 보이거나 부정(否定)을 극복하고 다시 전(轉)하여 적극적으로 현세에 참여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나 혼자만의 이익이나 깨달음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사회와 중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리와 이타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종교다. 따라서 불교는 자비의 종교로서 강력한 구제의 가르침이 있다.<sup>40)</sup>

최근 불교계에서는 종단 차원에서 불교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고, 요즘 들어 본사나 단위사찰별로 시설을 운영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이는 이전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 살펴본다면 매우 발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시설수의 확대만이 급선무가 아니라 불교사회복지의 특성과 독자성을 살리고 자비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인간구제의 종교라는 불교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회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불교사회복지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sup>41)</sup>

지금까지 불교는 한국적 가족공동체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국적 정서를 대변해 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활동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불교 사회복지의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불교사회복지도 종래의 자선사업적 성향이나 서구 사회복지의 단편적인 모방에서 벗어나 불교사상에 입각한 독자적인 사회복지의 영역을 구축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려가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흐름이나 제도와와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현실적 욕구충족뿐만 아니라, 인간을 물질과 육체 및 정신에 의해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원만한 충족으로 보다 나은 이상세계를 지행해 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40) 김용택 (2002) p.15.

41) 김수영 (2001) p.49.

따라서 불교 교리에 자타난 인간 복지의 파악이나 해결방법과 더불어 불교사회복지의 현 실태에 대한 파악과 함께 불교 사회복지 사상의 체계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불교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한 방법론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sup>42)</sup>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시작한 것은 불교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고려시대는 불교 중심 문화였으며, 왕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찰의 재정은 부유해졌고 사찰은 국가의 각종 재해나 빈민구제를 왕조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졌다. 전형적인 봉건제도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구제사업에 종교의 번성과 함께 구빈사업과 빈민보호사업은 지금보다 더 활발했다. 조선시대는 송유역불로 인해 고려시대만큼은 활발하게 이어지지 못했지만 여전히 사찰 중심으로 사회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스님들에 의해서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지만 비대해진 교회가 외향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를 시작해서 지금은 단계적인 전문가와 양적으로도 가장 성공한 케이스다. 불교도 알찬 내실을 위해 땀들일 것이 아니라 일단 적은 지원과 인력으로라도 힘찬 시작을 해야 한다. 즉, 산수 좋은 사찰의 공간에 개인의 소외감은 다질 수 있는 참선과 명상 등의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현대에 맞는 종교의 포교복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제시한다.<sup>43)</sup>

- 1) 체계적인 이론과 기술을 갖추기 위해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 2) 전문적인 권위를 갖추어 사회에서 존경과 신뢰와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야 한다.
- 3) 불교는 타 종교에 비해 현대화된 복지활동이 생소하기 때문에 더

---

42) 오정여 (2002) p.39.

43) 김수영 (2001) p.35.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한다.

4) 전문적인 요건을 갖추어 국가적으로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불교사회복지사들이 이와 같은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사찰공간의 이용 :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사찰에서 스님이 하게 되면 더 좋은 평을 듣는 것처럼 사찰의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2) 신도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활용 : 복지는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한다. 급여로 움직이는 직원보다 체계적인 훈련으로 무장된 불심(佛心)에서 우러나오는 자원봉사자가 가장 적합하다.

(3) 상담사업 : 종교에서 오는 신뢰감으로 스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담 사업이 가장 좋은 조건이 된다.

(4) 일시 보호소의 확대 : 사찰의 객실을 이용하여 고요하고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미혼모나 가출한 이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곳이 될 것이다.

(5) 문화공간 이용 : 자연환경이 좋은 사찰의 일부분을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과 좀 더 친밀해지도록 노력한다.

(6) 결연사업 : 사찰의 신심이 두터운 불자와 비 불자들의 결연을 맺어 후원을 하면 그 성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종단이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의 한 분야로서 광범위한 정책으로 장애인복지(특히 중증장애인 시설 및 중증장애인 서비스제공에 관하여)에 불교적인 특성이 가미된 서비스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 3. 장애인복지의 범불교적 실천방안

불교계에서는 불교의 특성을 살린 복지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불충분한 재정 및 인력부족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서 복지활동을 해야 하는 불교계로서는 타 종교에 비해 모든 면에서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sup>44)</sup>

불교의 교리에 나타난 인간복지의 파악 및 해결방법과 더불어 현 불교 복지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복지의 현상과 사회체제와의 관계 성립과 다른 사회복지활동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불교의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신념이 요구되는데 모든 인간이 연기적 관계라는 인식을 통해 사회적 질환의 존재 가운데 자기의 동질성을 발견하고 이타행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 1) 불교장애인 자기역량강화 지원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소수자관점에서 시작된다. 즉, 장애인은 사회의 소수이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회, 자원 등이 박탈된 것이며, 사회적 가치하락, 기회붕괴, 억압과 차별이 문제임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sup>45)</sup>

하지만 장애인도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통제하며,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즉,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시 선택의 권리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

---

44) 김용택 (2002) p.31.

45) 변용찬 외 (2004) p.43.

고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재정적 자립을 위한 직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업장의 확보도 자력복지를 위한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불교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력복지의 실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러한 의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는 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실천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 (1)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의존성을 벗어나는 것, 스스로 선택하여 만족하는 삶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하는 것, 자신의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는 것을 말한다. 자립생활(센터)은 미국에서 발전되어온 이념이자 모델이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정상적인 삶을 위해 이전의 어떠한 것보다도 유용하고 효과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확산되고 있다. 불교장애인 자기강화 방안으로 자립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지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그것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표5-1>로 정리할 수 있다.

<표5-1> 자립생활지원 제공 서비스

자립생활지원서비스	내 용
<p>① 동료상담 (Peer Counseling)</p>	<p>장애인이 품고 있는 문제의 절실함과 곤란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장애인이므로, 문제를 공유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으로부터 적절한 조언과 정보를 얻는 것은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입장에서, 경험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유사한 경험을 한 동료가 상담활동을 하는 것이다. 동료상담은 자립생활을 경험한 역할 모델을 통해, 법률적인 문제, 재정관리, 지역사회자원 활용, 곤란한 문제에의 대처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주거나 정보를 제공한다.</p>

<p>② 활동보조서비스 (Personal Assistance Service, PAS)</p>	<p>중증장애인이 신변처리를 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활동을 하고자 할 때, 도와주거나 대신해 주는 서비스로서, 활동보조서비스의 목적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타인에게 위임함으로써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와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자원봉사 서비스와는 달리 유료의 비용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 유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장애인이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시간, 용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비자의 입서의 생활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 선택과 참여, 그리고 접근의 영역을 확장시켜, 그 결과로 교육적·직업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된다.</p>
<p>③ 이동서비스 (Transportation)</p>	<p>자립생활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일종의 교통서비스이다.</p>
<p>④ 자립생활기술훈련 (Independent LivingSkill Training)</p>	<p>실질적이며 기능적이고 전략적인 기술훈련으로, 동료교육(Peer approach)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경험에서 얻어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자립생활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스스로의 의사결정의 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 관리,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 관리, 개인 재정관리 등이다.</p>
<p>⑤ 정보제공과 의뢰 (Information/Referral)</p>	<p>장애인들이 직접서비스 외에도 각종 결정, 자원의 활용,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른 기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활동이다.</p>

<p>⑥ 권익옹호 (Advocacy)</p>	<p>권익옹호서비스는 자립생활서비스를 이전의 지역사회 중심의 기타 프로그램이나 기관들과의 확연한 차이점으로 인식된다. 단순한 서비스 제공의 차원을 넘어 권리의 차원에서 문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권리의 침해를 해소하고 법률적인 지원을 포함한다. 장애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이제까지의 전통적이고 의존적인 규범을 탈피하여 장애인 스스로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추구한다.</p>
<p>⑦ 주택서비스 (Assistance in obtaining and modifying accessible housing)</p>	<p>자립생활을 달성함에 있어 주택 관련 권익옹호, 정보 제공 및 기술적 지원, 주택의 개조(改造), 소개, 주택 비용의 조성, 지원제도의 활용 등이 해당된다.</p>
<p>⑧ 장비관리, 수리, 임대(Equipment maintenance, repair and loan)</p>	<p>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각종 재활기구, 보장구의 유지·관리를 지원한다.</p>

## (2) 직업재활 지원서비스

장애인도 직업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과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자존과 존엄을 찾을 수 있고, 의존적 생활로부터 독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국가 고용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sup>46)</sup>

직업재활은 현재 저 세계적으로 정착된 개념규정으로 I.L.O.(국제노동기구)에 의한 1967년 직업재활의 기본원칙 속에 표현된 정의인데, 이를 보면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물리적·심리적·사회적·직업적·경제적 능력 등에 대한 여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개선하여 독립적으로 경제력을 갖는 생산적 인간으로 복구시키는 과정”이라고 밝히고 있다.<sup>47)</sup>

46) 이상운 (2002) pp.17~18.

47) 조인수 (2000) p.4.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직업재활지도, 직업 적응훈련,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48)</sup>

따라서 직업재활은 장애로 인하여 제한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찾고 길러줌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일 할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근로기회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따르는 적절한 고용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조치<sup>49)</sup>이고,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재활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재활은 많은 연구에서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는 인도주의적 사업일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인간을 경제적 가용인간으로 만듦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없애고 사회적 생산에 기여케 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임이 밝혀지고 있다.<sup>50)</sup> 이러한 직업재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첫째, 모든 사람은 지본적인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심신의 결함의 범위 내에서 인생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모든 사람은 사회성원의 일원이므로 재활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모든 개인의 자질은 중요시 되어야 하고 보호 및 계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질도 존중되고 계발되어야 한다.

넷째,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결함의 한계성과 환경의 한계성을 인식하면서 현실적으로 대처하여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

48) 홍인식 (2007) pp.7~8.

49) 나운환 (2001) p.25.

50) 손정녀 (2008) p.21.

다섯째, 장애인의 신체적 욕구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욕구를 참작하여 전인적으로 도와야 한다.

여섯째, 재활치료는 각 개인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일곱째, 문제를 의식하고 해결할 사람이 바로 장애인 자신이기 때문에 재활에는 장애인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여덟째, 장애의 발생 원인을 전적으로 장애인 개인에게 돌리기에는 사회적 책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장애인의 재활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아홉째, 직업재활은 여러 문제가 복합되어 있으므로 각 영역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서로 협력 및 보완하여야 한다.

열 번째, 재활은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과정이어야 한다.

열한 번째, 장애인은 자신이나 재활프로그램에 대하여 심리적 반응이 발생하게 되므로 항상 장애인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열두 번째, 재활과정이란 연속되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반드시 장애인 자신과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sup>51)</sup>

종교적인 실천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면에서 복지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이와 접합해서 불교에서 개발 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3)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지원 서비스

직업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의 생활 자원을 획득함과 동시에 자기실현을 이룩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sup>52)</sup>

---

51) 이상춘 외 (1992) pp.27~28.

52) 이영태 (1988) p.8.

따라서 직업재활훈련을 통해서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에 좀 더 주체성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을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의 예를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 기능의 결여에 따라 사회적, 직업적 적응면에서 많은 제한을 가지나, 교육받은 청각장애인은 일반인들 못지않게 여러 전문분야에서 탁월성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므로, 이 가능성의 세계가 구체적 교육의 과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각장애인들의 언어 수용과 표현의 장애에서 오는 직업재활에 어려움을 직업재활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up>53)</sup>

청각장애인 직업재활과정도 다른 장애영역과 마찬가지로 접수 및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배치, 사후지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각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재활은 개인의 직업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직업상담 평가훈련을 통해 고용되어 직업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인으로서 완전한 사회복귀와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돕는 과정이다.<sup>54)</sup> 이를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재활 서비스의 수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장애인 공단에서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세부과정으로 나타내면 <표 5-2><sup>55)</sup>와 같다.

---

53) 김소연 (2006) p.1.

54) 장은혜 (2008) p.15.

55) 이형열 (2007) p.17.

<표 5-2>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 과정별 특성과 접근방법

직업재활과정	특성	접근방법
직업상담	청력손상을 제외하고 비장애인과 비슷한 신체조건으로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음	내담자의 일반적인 정보를 비롯한 청력손상정도, 의사소통 수단, 직업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
직업평가	청력손상이 직업선택의 범위, 내용, 직무수행능력, 대인관계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침	문해능력, 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사회성에 대한 고려
직업배치	조면, 고음에 민감하여, 의사소통으로 인한 업무이해 및 대인관계에 관련이 있음	청각장애를 고려한 직종과 직무에 배치하며, 적절한 의사전달체계를 준비
사후지도	청각장애인의 잦은 이직, 전직과 직장 내 환경(직무 및 대인관계) 에의 적응에 곤란이 있음	고용주와 동료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각장애인 특성에 대한교육,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수화통역사 배치, 직장에 수화교육 등), 청각장애인의 직업적응 관련교육

출처 : 이형열 (2007)의 연구를 참고로 재구성

보건복지부의 2009년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현황은 <표 5-3><표5-4><sup>56)</sup>와 같다.

5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9) pp.300~301.

<표5-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및 인원 수 (연도별)

(단위 : 개소, 명)

구분	전체		보호작업 시설		근로작업 시설		작업활동 시설		직업훈련 시설	
	시설 수	입소 인원	시설 수	입소 인원	시설 수	입소 인원	시설 수	입소 인원	시설 수	입소 인원
2002	194	5,715	177	3,379	17	961	-	1,111	-	264
2003	222	6,987	202	3,890	20	1,107	-	1,642	-	348
2004	236	7,486	143	4,091	19	1,178	64	1,857	10	360
2005	265	7,684	153	4,214	25	1,252	76	1,889	11	329
2006	319	9,481	177	4,835	24	1,246	107	3,019	11	381
2007	339	10,059	189	5,238	29	1,344	109	3,074	12	403
2008	364	10,422	212	5,559	31	1,422	108	3,029	13	412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9), p.300.

<표5-4>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현황(연도별)

(단위 : 개소)

구분	전체	복지관	의료 재활 시설	주간 보호 시설	단기 보호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체육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2002	336	92	14	61	15	63	13	40	38
2003	440	106	14	90	25	100	15	45	45
2004	536	121	14	100	30	152	18	51	50
2005	1,049	130	14	259	61	331	22	124	108
2006	1,125	137	26	274	69	358	25	129	107
2007	1,286	157	16	321	76	400	24	149	143
2008	1,419	171	17	365	84	450	26	152	154

출처 : 한국장애인촉진공단 (2009), p.301.

<표 5-3><표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시설수와 입소인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6년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근로시설의시설 수는 감소하였고 직업훈련의시설 수는 전년도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 활동 시설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청각장애인은 건청인에 비해 불완전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높고, 동등한 지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능력에 관계없이 반숙련직이나 비숙련직에 고용되는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청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이동이나 신분처리, 직무수행에서 자유로운 반면 청력손실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대인관계의 결함이 생길 수 있고, 둘째, 재활기관의 직업교육 과정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만 주된 전달방식이 구어강의나 필담을 통해 진행되므로 훈련기술이 적절하게 전달되거나 습득되지 못한 채 직장에 배치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셋째,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청각장애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장애특성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해당 직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sup>57)</sup>

## 2) 불교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

불교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정신적 불안을 제거하여 독립과 자활을 지도하는 정신적 복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자원의 동원과 원조 조치를 통해 물질적 복지도 병행해서 실시하며, 장애원인을 제거하고 사회환경을 조정하여 조직을 통해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 방법과 각 불교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 방법으로 개인이

---

57) 강운주 (2005) p.11.

나 집단을 지도할 수 있는 개별적 방법 및 불교장애인복지와 공공사회복지의 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찰 직영의 복지시설에서는 불교의 특성을 살릴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시행해야 한다. 사찰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체험 및 가족캠프 주말농장이나 귀농학교 등 사회적 변동의 추세에 따라 종래의 자선사업적 경향이나 일반사회복지의 일률적인 모방에서 벗어나 불교사상에 입각한 불교장애인복지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흐름이나 제도관련성을 고려해서 물질만이 아닌 정신적인 공동체의 실현을 통해, 현실적 욕구충족 뿐만이 아니라 물질과 육체 및 정신의 원만한 충족으로 보다 나은 이상세계로 지향해 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재교육을 통한 사회문제 인식과 장애인 인식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불교적인 학술연찬과 세미나를 통하여 장애인복지 정책의 변화를 추구해야만 한다.

불교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은 불교의 사회복지 실천을 바탕으로 하여 각 지역의 포교의 전당인 사찰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불교 사회복지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1) 장애인에 대한 불교인들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애인에게 불교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여도 장애인들은 여전히 불교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님과 불자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앞장서서 열어주어야 할 것

이다.

불교계에서는 어느 분야든 간에 스님들이 주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스님들의 승가교육 프로그램에도 수화와 점자 및 사회복지를 의무화하여 스님들이 직접 복지현장에서 장애인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재가 불자들은 물론, 장애인들도 봉사하는 스님들의 모습에 친근감을 느끼며 불교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렵고 엄숙하게만 느껴지던 스님들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모습에 감동하고 그들 역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살아 갈 것이다.

## (2) 사찰의 편의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사찰의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들도 불자로서 당당히 함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불교문화가 가득한 사찰은 산중에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혼자 접근하기가 어렵고, 도심속 사찰이어도 계단이 많아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

전국 유명사찰 입구에 장애인 전용차량을 갖추어서 지체장애인들의 이동권리를 배려해 주고 그들의 손발이 되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에 편의를 주어야 한다.<sup>58)</sup> 그렇게 한다면 장애인들도 불교 사찰에 마음 놓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신심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자도 각 사찰에 배치하여 불교 교리와 역사를 수화로 통역하여 준다면 그들도 쉽게 적응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경전의 제작과 기초불교교리를 점자화 하여 널리 배포하는 작은 배려는 마땅히 불자들이 앞장

---

58) 방정숙 (2002) pp77~78.

서서 실천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3) 불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아동들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일반학교에서도 분리된 수업을 받는 경우가 많아 차별화된 교육현실에서 장애아동은 물론 부모까지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이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함께하는 교육으로 인해 비장애 아동은 어릴 때부터 장애인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고, 장애아동 역시 비장애 아동과 만나는 기회가 많아진다. 따라서 장애와 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평등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경험한 장애아의 경우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데 효과가 있다.

(4) 재가 장애인을 위한 불자들의 방문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97%의 장애인이 재가 장애인 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편견 또는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없기에 단절된 상황에서 외로운 시간을 혼자서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찰의 자원봉사자들은 재가 장애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법음도 들려주어 신앙심도 고취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또한 외출도우미 서비스나 말벗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중증장애인도 자력으로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느껴 정신적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장애인포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불가(佛家)에서는 장애인들은 출가할 수 있는 자격에서 제외된

상태다. 기독교에서는 장애인들이 직접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고, 장애인들만의 전용교회도 많지만, 불교에서는 장애인에게 포교사 시험제도가 없는 상태다.<sup>59)</sup> 하루 빨리 종단 내에서 장애인포교사를 양성하여 장애인 부서와 장애인포교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포교사가 되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장애인을 직접 지도한다면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교감이 되어 그들의 문제와 정신적 고통을 쉽게 이해하여 문제해결이 더욱 쉬워질 것이다. 또한 비장애인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장애인들의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어려움의 격차 적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불자들의 보살심을 바탕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운영을 한다면 불교장애인복지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자들은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삶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는 인식의 대전환과 아울러 문화복지의 힘이 솟아날 때 비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

59) 조석영 (2003) p.71.

## V. 결론 및 제언

장애인이 겪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불이익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유아나 아동기의 장애발생은 평생을 장애를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몫은 더욱 커지게 된다. 장애의 발생은 선천적인 문제나 개인의 사고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산업재해, 환경오염, 약물중독 등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예방에 다 같이 힘을 기울인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며, 비록 장애가 발생하였더라도 적절한 대책에 앞장선다면 개인적 손실과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지닌 관심과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활동에 크나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은 불교적 차원에서는 임신 전 단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우선 오계의 불음주 계를 바탕으로 아이의 부모에게 건강한 몸을 가꿀 것을 말할 수 있다. 부모의 건강한 몸은 아이에게 건강한 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애발생의 확률이 적어지게 된다.

또한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인 스트레스는 불교의 마음공부를 통하여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정신적·신체적 건강함을 바탕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사상을 바탕으로 후천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서 정신지체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마음을 다스림으로서 사고에 의한 장애발생의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사고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되어 감정이 악화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는데, 불교의 정신수양으로 개개인이 안정을 찾음으로써 사고예방의 기능도 할 수 있다.

불교계의 사회복지 참여는 복지자원을 다양화하여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원동원의 양을 늘리고, 이를 통해 현재의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점차 복지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는 그 어느 때보다 장애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0만의 장애인들이 있고, 세계인구의 10%가 장애인이라는 것이 불교도들의 사회참여 방법으로서의 복지활동 참여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불교를 종교적으로 정신적인 지지처로서 안주할 것이 아니고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개혁적 방법으로서 불교의 가치관을 기저에 두고 생각하며 생활해야만 한다.

또한 현재 한국불교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불교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증대됨과 더불어 외국의 장애인들도 한국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승산스님을 비롯한 많은 한국불교의 승려들에 의해 한국불교의 문호가 열리게 된 것이다.<sup>60)</sup> 따라서 외국의 장애인들도 한국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는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사람들과 후천적으로 장애를 지니게 된 사람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서 그들의 사회활동과 정신보건의 향상을 위해 하는 활동이다. 장애는 언제 어느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직시해야만 한다. 현실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 조금 불편하다는 괴로움이 있는데, 이 불편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생활의 불편함은 사회활동의 어려움을 수반하게 되며, 사회활동의 부재는 곧바로 가정의 빈곤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은 사회활동의 부재라는 악영향으로 점차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의 활성화와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모든 정열을 쏟아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을 살펴본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면서 프

---

60) 한국국적의 승려들과 더불어 외국국적의 승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 추세에 의하면 외국 승려들의 포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로그램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생활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 즉, 일반인의 풍요가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평이하다.

이와 같은 현실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에서 비장애인의 장애인 인식의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 것이며, 장애인복지를 위한 현실적 상황의 파악과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해결해가는 것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보여 지는 불교의 상황은 어떠한가?

불교사회복지가 체계화되어가고 있고 점차 활성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교장애인복지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다. 불교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불교도들의 사회복지 참여에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만이 아닌 정신적 서포트와 사회적 인식의 재고를 위해 힘써야 한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본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도록 정신적 지지책과 비장애인의 지속적인 교육이 종단차원에서 신도교육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불교적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장애인이 불교적 가치관을 지니고 정신적·사회적 지지기반을 마련해주고, 불교복지의 기틀을 다져야 할 것이다. 셋째,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재정문제는 국가적인 정책적 개선을 통한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단차원에서도 재정적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 기금의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제언할 것은 취업지원의 부족 문제로서 이는 장애인의 자아실현의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앞의 재정문제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러한 해결책으로는 우선 불교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바탕으로 한 취업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교장애인 복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단기적 안목에서 재정적 지원만이 아닌 정책과 정신적지지,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실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불교장애인복지의 직접적 실천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불교사회복지가 사회적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것을 뛰어 넘어 사회현상을 올바른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이끌어 갈 사명감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교사회복지의 사상정립과 그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원전류>

- 한글대장경, 유마경외,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지장보살본원경,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화엄경,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약사경,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법화경,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증일아함경, 동국역경원.  
『大正藏』 T. 5, 『大般若波羅蜜多經』.  
『大正藏』 T.10, 『大方廣佛華嚴經』.  
『大正藏』 T.25, 『大智度論』.  
『大正藏』 T.16, 『佛說布施經』.  
『大正藏』 T. 8, 『摩訶般若波羅蜜經』.  
『大正藏』 T.30, 『瑜伽師地論』.  
『大正藏』 T. 1, 『中阿含經』.  
『大正藏』 T.35, 『華嚴經探玄記』.  
『大正藏』 T.14, 『維摩詰所說經』.

### <단행본>

- 권경임(2004), 『불교사회복지 실천론』, 서울 : 학지사.  
권경임(2009), 『현대불교사회복지론』, 서울 : 동국대학교출판부.

- 권육상 외(2005), 『장애인복지론』, 서울 : 유풍출판사.
- 구자헌(1981), 『한국사회복지사』, 서울 : 홍익제.
- 김미옥(2003), 『장애인복지 실천론』, 서울 : 나남출판.
- 김선근(2000), 『인도 정통철학과 대승불교』, 서울 : 동국대학교 출판부.
- 나운환(2001),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의 역할 연구』, 서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1996), 『불교사회복지편람』, 서울 : 여래기획.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1994), 『교회사회봉사총람』
- 森永松信, 이혜숙 역, (1992), 『불교사회복지학』, 서울 : 불교시대사.
- 박옥희(1998),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박영사.
-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1996), 『21세기 한국가톨릭 사회복지의 전망』, 카톨릭사회복지회 설립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이상춘(1992), 『장애인 직업적응을 위한 재활방법』, 서울 : 성원사.
- 이형열(1997), 『청각장애인의 직업유지 요인』, 파주 : 한국학술정보.
- 조인수(2000), 『생활·직업전 훈련프로그램이 정신지체아의 직업준비 기능에 미치는 효과』, 서울 : 한국재활심리학회.
- 하상락(1995), 『한국사회복지사론』, 서울 : 박영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9), 『2009 장애인 통계』, 서울 : 자유기획
- 한국천주교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1997), 『한국가톨릭 사회복지의 실태와 전망』

#### <학위논문>

- 강윤주(2005), 「직업재활 과정에 따른 수화통역사의 역할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소연(1996), 「청각장애학교 직업교육과 사회취업과의 효율적 연계 방

- 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주영(1997), 「불교의 역사경에 나타난 장애인관 연구」, 단국대학교.
- 방정숙(2005), 「불교 장애인복지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 서병진(2005), 「아쇼까왕의 복지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
- 손정녀(2008),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 오정여(2002), 「불교사회복지의 인식도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 불교사회복지 연구원.
- 이상운(2002),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영태(1998),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장은혜(2008), 「농아인의 직업유지와 관련한 농문화 체험」,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 장재형(1992), 「기독교의 사회복지이념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홍인식(2007), 「장애인 직업재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 <논문>

- 강일조(2002), 「원불교 교전을 통해서본 원불교의 장애인관」, 한국원불교학회.
- 김동배(1994), 「교회 사회봉사사업의 실태」, 교회사회봉사총람.
- 김수영(2001), 「지역사회내에서 사찰의 사회복지활용 및 실천방안」,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김용택(2002), 「불교사회복지의 지역사회복지와 실천」,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
- 김윤태(1993), 「장애 발생의 원인과 문제점」, 장애우대학자료집.
- 김응철(2000), 「불교복지사업이 걸어온 100년」, 불교평론.
- 방정숙(2002), 「불교복지사상에 입각한 장애인복지 현실과 과제」, 조계종 사회복지 창간호.
- 변용찬(1996), 「무허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의 과제」, 서울사회복지포럼
- 변용찬 외(2004), 「장애인문화복지 증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성규탁 외(1991),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한국 기독교문화연구소
- 이법산(2004), 「정토교학의 복지사상, 정토학 연구」, 한국정토학회.
- 이정학(1996), 「불교장애인 복지」, 동국대학교 석림회.
- 이정호(2003), 「불교 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불교복지문화연구소.
- 이준상(2003), 「카톨릭 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불교복지문화연구소.
- 전광현(2003), 「기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불교복지문화연구소.
- 조석영(2003),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천수천안자원봉사단.
- 최성재(1994), 「교회 사회봉사사업의 계획과 실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Abstract

# The Research on the Plans for the Buddhist Social Welfare

Kwon, Soon-Hyuk

Department of Buddhist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Based on the social science rules, the Buddhist Social Welfare can save the humanity from social isolation resulting from the modern society's reversed values. This paper attempts to look into the problems of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run by Buddhist organizations and to come up with solutions.

This paper states the purpose and range of this research in the first introduction section and in the second section it discusses the definition and necessity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and Buddhist social welfare through the great mercy and compassion of Buddha. In the third section, the problems of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re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other religions', in the forth section, this paper points out the current problems of Buddhist welfare system, and in the fifth section it

discusses the roles of government and all Buddhist denominations to help severely disabled people to live on their own efforts.

The sixth section concludes and summarizes this paper and attempts to come up with the wisdom based on Buddhist behaviors that would solve the current problems.

The focus of this study is based on Buddhist theories and the research conclusion for the improvement of welfare system for the disabled people is as follows. Based on the Buddhist oath of abstinence from alcohol, the researchers have suggested ways to reduce and prevent the disability in children based on their parents' mental and physical health.. This paper also looks at the current situation of welfare system for the disabled, and proposes the following for the financial, mental, and social support.

First of all, as a solution to provide mental support for the disabled and to get rid of prejudices against them, there must be an education on the Buddhists.

Secondly, through the development of Buddhist programs the disabled people should have Buddhist values that would provide them with mental and social support. Third, financial problems, which can be seen as the largest problem, must be solved through the government's policies. Moreover, social welfare funds are needed to get rid of such problems. The final proposal is regarding the lack of job for the disabled people and it is considered a way to help those people reach self-realization, which can solve the abovementioned financial problem as well. Such solution requires Buddhists' active participation and the government's supportive system that would provide jobs to the disabled people.

Such proposals to solve the problems of Buddhist welfare system include not only financial support but also mental support and policies that would develop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Active execution and the disabled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society are necessary and to do so, Buddhist Social Welfare should help them improve their social status. Moreover, it should realize its duty to carefully lead the abovementioned social phenomenon, based on Buddhist values. Also, there must be more studies and researches on the definition and application of the idea of Buddhist Social Welfare.